

# 경기 남부 지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주민과 가족들의 삶

아  
50  
한국





# 경기 남부 지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주민과 가족들의 삶



# 목차

그림 목차 .....	7
표 목차 .....	7
<b>1. 지역 문현 기반 연구</b>	
1.1. 경기 남부 지역과 화성시 .....	8
1.2. 지역조사 .....	11
1.3. 이주민들을 바라보는 한국의 정책들 .....	12
1.4.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 가족들의 삶 .....	13
1.5. 이주민 가족과 비자 .....	14
1.6. 이주배경 자녀의 교육과 한국어 .....	18
<b>2. 인터뷰를 통한 사례연구</b>	
2.1 경기 남부지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가족들의 인터뷰 .....	20
<b>3. 결론 :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b>	<b>44</b>
<b>참고문헌 .....</b>	<b>47</b>



## 그림 목차

- <그림 1>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 2024년 8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 <그림 2>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현황 2024년 8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 <그림 3> 등록외국인 시군구별 거주현황 2024년 8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 <그림 4> 김양우, “화성시의 제조업 산업현장” 2024
- <그림 5> 등록외국인 읍면동별 현황 경기도 화성시 2024년 3월 31일 행정안전부
- <그림 6> 등록외국인 시군구별·연령별 현황 2024년 3월 31일 행정안전부
- <그림 7> 신현진, “이주민 가족의 CASE : 경제활동가능인구 1인이 한국에 있고 배우자 자녀가 본국의 있는 경우 (E9비자인 경우가 다수)”, 2024
- <그림 8> 신현진, “이주민 가족의 CASE :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와 배우자가 한국에 있고 어린 자녀만 본국에 두고 오는 경우 (E7비자-F3비자)”, 2024
- <그림 9> 신현진, “이주민 가족의 CASE : 가족들이 모두 함께 한국에 있지만 경제활동이 1인만 가능한 경우 (E7비자-F3비자)”, 2024
- <그림 10> 신현진, “이주민 가족의 CASE : E7비자 - F3비자의 가정에서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는 경우”, 2024

## 표 목차

- <표1>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길잡이 비자 네비게이터 2022년 12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 1. 지역 문현 기반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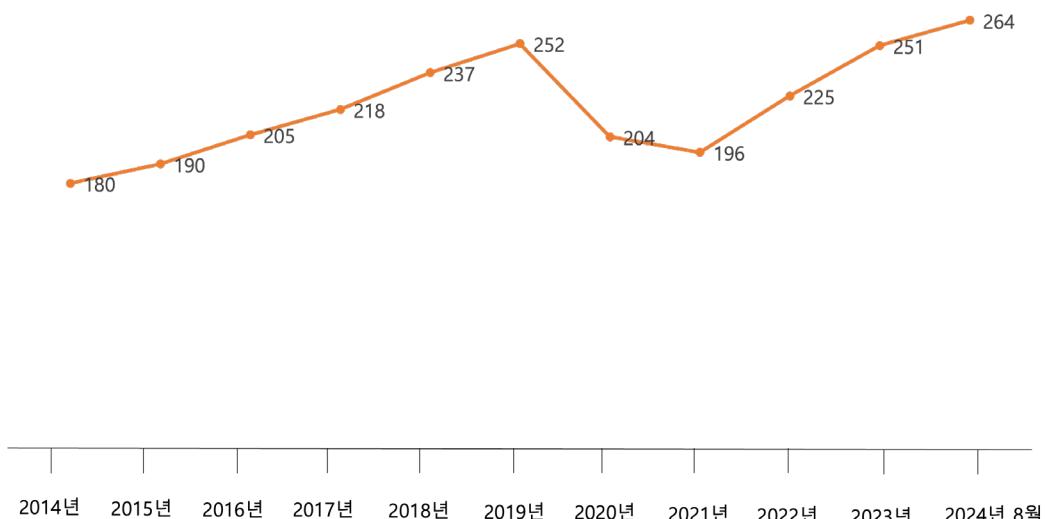
## 1.1. 경기 남부지역과 화성시

한국은 이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24년 8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은 263만9521명으로 전체 인구(5128만5153명)의 5.06%의 해당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외국인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를 넘긴 인구분포의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국내 인구가 저출생으로 인구 정체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사회 구성원이 된 외국인이 늘어난 것이 영향이라고 추측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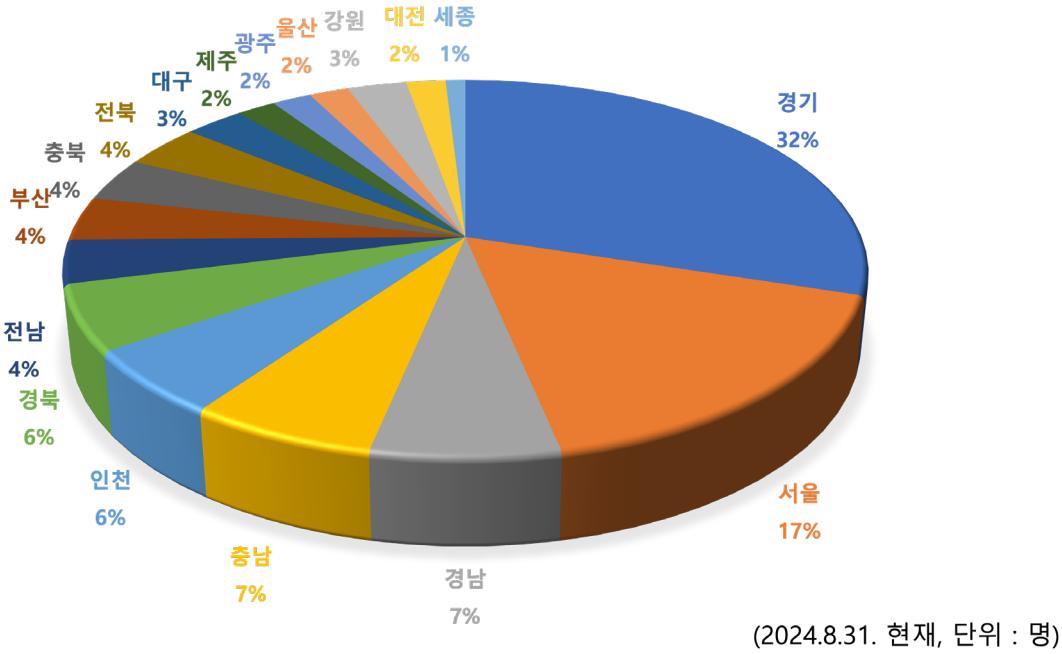
그 중 경기도는 전체 한국의 행정 구역 안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2024년 8월 기준, 전체 등록 외국인 1437,286명 중 경기도에 등록 외국인은 452,345명으로 전체에 32%가 되는 외국인 인구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 그 중에서 화성시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에서 2번째로 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에 이어 화성시는 49,166명으로 국내에서 등록 외국인이 많은 지역 2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 시흥, 수원, 평택 등이 따랐고, 국내에서 등록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상위 5곳이 경기 남부 지역에 해당된다. 또한, 집계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살아가는 것으로 추측된다.

화성시에 많은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유는 제조업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경기도 화성시에는 20여 개가 넘는 산업 단지들이 있다. 향남제약단지, 덕우공단, 화성팔탄공단, 쌍송공단, 석포산업공단, 금복산업공단, 마도 송정공단, 청원공단, 은장공단, 송암산업공단, 우정산업단지, 마도청원공단, 문학공단, 양감산업단지, 고모리공단, 박석공단, 금당공단, 동문공단, 삼덕공단, 호곡공단 등 산업단지가 있으며 산업단지에 속하지 않은 수많은 공장들도 위치해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근로를 위한 외국인 이웃들이 많이 자리잡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경기 남부지역에 위치한 경기도 화성시는 외국인 주민들 중에서도 비전문취업(E9)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구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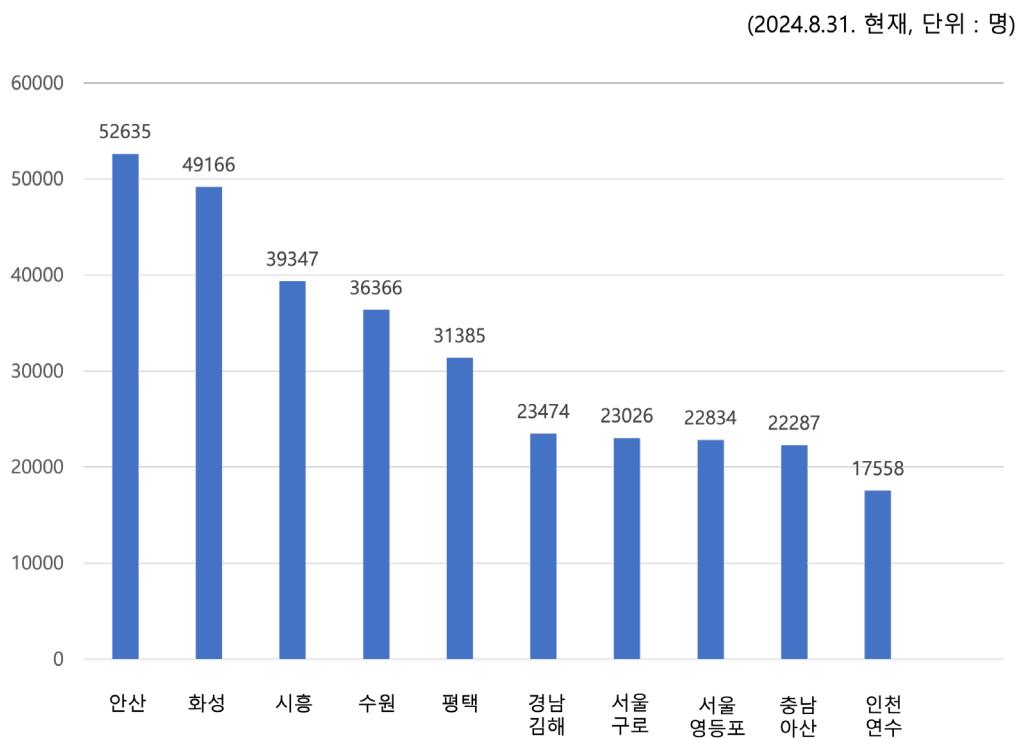
(단위 : 만명)



<그림 1>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 2024년 8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시각화함.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4년부터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0년 펜데믹 기간 감소했다가 다시 꾸준히 증가함.



<그림 2>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현황 2024년 8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시각화 함.



<그림 3> 등록외국인 시군구별 거주현황 2024년 8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등록 외국인이 거주하는 상위 지역 10곳을 시각화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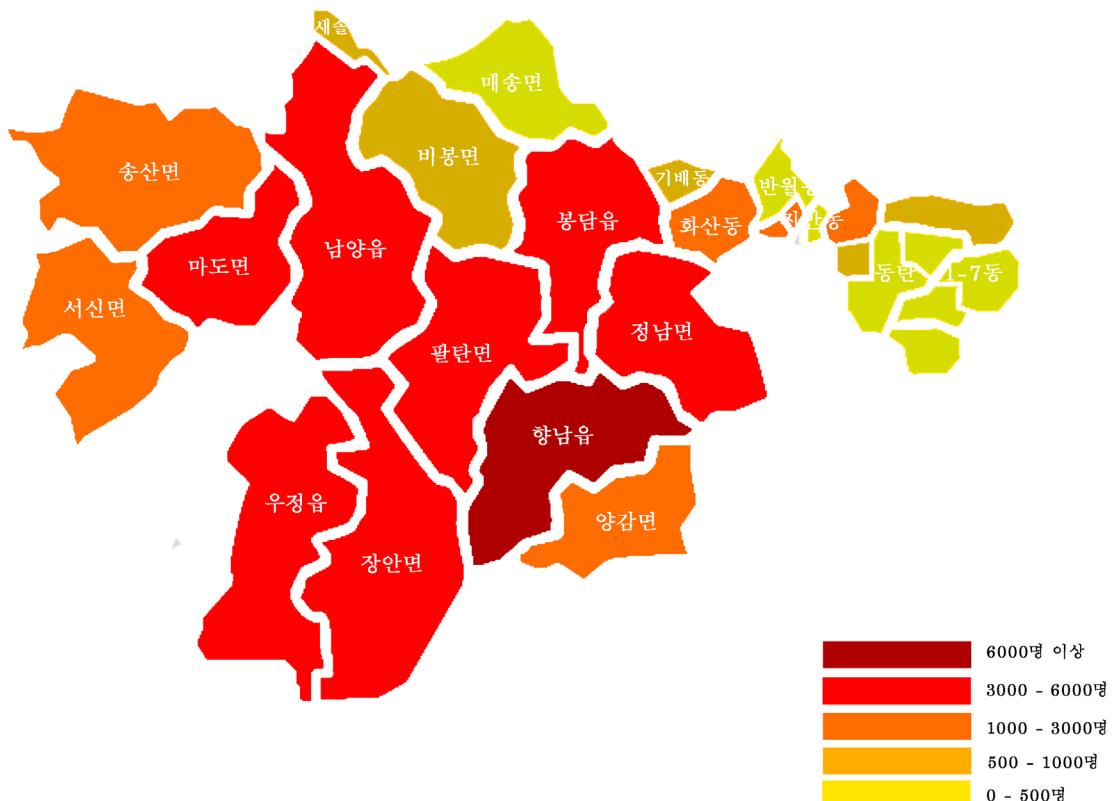


<그림 4> 화성시의 제조업 산업현장

## 1.2. 지역조사

외국인 주민들은 화성시에서도 특히 서남부지역에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3월 기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등록외국인 읍면동별 현황을 살펴보면, 향남읍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6,165명으로 화성시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었고, 팔탄면에는 4,809명, 장안면이 4,372명, 남양읍에는 4,311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외국인 주민들이 특히 경기도 화성시의 서남부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이유는 화성시의 동서지역의 지역차이와, 서남부지역의 제조업 현장들이 있어 일자리가 있으며, 화성시의 재래시장인 발안만세시장, 남양시장, 조암시장, 사강시장 인근에 외국인 주민들에게 익숙한 고향의 음식점들과 고향에서 온 친구들이 자리잡고 있어 생활에 필요한 식재료나 물품들을 구하고 타지에서 살아가는데 정보를 비교적 편리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추측한다.

경기도 화성시는 최근 100만 인구를 넘기며 특례시로 승격을 앞두고 있어 선주민의 전입 인구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멀리서 온 외국인 이웃들 또한 늘어나는 것으로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선주민과 이주민이 같은 장소에 아주 가까이에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차이로 인해 교류가 적고, 거리감 속에 살아가고 있기도 하다.



<그림 5> 등록외국인 읍면동별 현황 경기도 화성시 2024년 3월 31일,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시각화함.

### 1.3. 이주민들을 바라보는 한국의 정책들

국내에 외국인 주민이 들어오게 된 계기는 1990년대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국내에 유입되게 되었다.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에 유입되게 된 이유에는 한국 사회가 성장하며 1인당 국민 총생산이 늘어난 동시에, 3D업종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국내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겪으며, 국내의 노동시장은 점점 더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하려는 성향이 생겼다. 이러한 공백을 매우기 위해 정부는 수천 킬로를 넘어온 이웃들을 국내 노동시장에 고용하기 시작하였고, 산업연수생, 현재는 고용허가제라는 이름으로 국내 산업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외국인 이웃들은 제조업, 농업, 조선업 등 한국사람들이 기피하고 어려워하는 일부터 배치되기 시작했고, 국내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멀리서 온 이웃들이 어렵고 힘든 파트에 먼저 유입되며 자리잡게 되었다. 이렇게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를 거쳐 자리잡게 된 한국의 경제와 노동을 위한 방법으로서의 이주민의 유입의 방법은 선주민과 외국인 주민들을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인식보다는 외국인 주민들을 한국의 경제나 산업에 필요한 수단이자 노동력 위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들을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존중하기보다는 차별들이 만무한 상황들이 만연하게 되었다.

한국에 외국인의 근로자가 유입된 이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외국인 고용과 국내의 노동시장의 문제 속에서 이주민들은 현재 제조업, 서비스업, 광업 등의 산업을 넘어서 이제는 가정과 가사의 노동까지 확대되고 있다. 2024년 한국정부는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가사 노동에 외국인 근로자를 유입하고자 발표하였고, 산업현장, 건설현장, 농업, 어업, 조선업, 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 도우미 등 가정의 기초적인 일자리에 외국인의 인력을 확충하려고 한다. 이렇게 발표한 한국정부의 정책은 문제점이 많은데, 특히 가정의 노동이 경제적인 활동이 되는 과정에서 가사노동을 평가절하한다는 점과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온 이웃들에게 최저시급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렇게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주민들의 유입을 양적으로만 확장하는 정책은 외국인 이웃들의 어렵고 힘든 산업에서의 노동의 위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선주민들의 거리감과 차이를 점점 더 견고하게 만들게 되기도 한다.

서울에서 아주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도 쉽게 이제 우리 주위에서 살아가는 멀리서 온 이웃들을 볼 수 있다. 외국인 주민들은 우리들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자 이웃이자 우리와 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기도 하다. 산업현장에서도 이주민 이웃들이 없다면 이제 한국의 산업은 현장들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정책들은 이주민과 이웃들을 출산율 저하와 노동력의 부족, 그리고 지방의 소멸이라는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으로만 인식할 뿐,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삶과 환경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으며, 이주민들과 선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는 듯하다.

나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멀리서 온 이웃인 이주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생각하고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멀리서 온 외국인 주민들을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귀찮은 일들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친구이자 이웃으로서 인식해야 하며, 인식속에 만연하게 자리잡고 있는 차별과 거리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멀리서 온 친구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이웃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동시에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1.4.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 가족들의 삶

이주라는 것은 사람이 오고 가는 일이다. 법과 경제적인 조건이 동반되기는 하지만, 하루, 일년, 십년 그 이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이주민들의 삶은 기술의 발전으로 이동과 자유로워지며 한국이라는 곳으로 이주한 후, 정주하기 위한 사람들의 시간이자 먹고 살기 위한 현재이고, 가족, 친구 이웃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이고 결국 나의,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이다. 언어도 생활도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이주와 이동을 겪으며 정착하며 살아가고자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수 천키로에 해당하는 먼거리를 이동하는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크게 정치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로 나뉘는 것 같다. 전쟁이나 단절로 인한 이주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글로벌화되고 기술의 발전으로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지구의 많은 장소들은 중력을 가지고 있다. 도시화 문명화된 장소는 더 많은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끄는 중력을 가진다. 또한, 기술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혹은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조금 더 낳은 미래를 위해 수천키로를 이동하며 새로운 곳에 살아가며 정착하려고 시도 한다. 그렇게 아시아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글로벌화되고 거시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낯선 한국이라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을 시도한다.

이주는 국가 간에 이동을 동반하기도 한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장소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래서 국가에서 법적으로 정한 것이 비자이다. 새로운 장소에서 머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각각의 개인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주로 비자에서 체류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이나 가정 내의 저축액이나 소득, 그리고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언어와 적응 능력을 본다. 이는 당연한 듯 보이지만, 이미 차이과 차등을 통해 글로벌화된 지형 안에서는 각 국가의 경제력과 자본은 개인의 소득과 배경에 영향을 주고, 다른 배경과 환경은 개인들의 삶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올해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주민들과 가족들을 만나 한국에서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보며 외국인 주민들과 가족들이 한국에서의 삶에 대하여 가능해볼 수 있었다.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만난 외국인들은 일자리를 찾으러 온 이웃들이 많기 때문에 근무를 위한 비자를 받고 그 이후 여건이 되면 가족들을 함께 초청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한국에 살아가는 외국인 이웃들은 경제적인 산업에 종사하며 오랜 시간을 떨어져 보낸 후, 비전문취업(E9)비자와 외국인숙련기능인력(E7)비자를 받고, 그리고 가족들은 동반(F3)비자로 초대하여 살아가는 경우였다.

외국인 주민들 중에서도 특히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외국인 이웃들은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자신과 가정의 소득과 환경을 증명해야하고, 고물가 시대 가정의 경제활동 인구가 한정된 상황 속에서도 가족들을 돌보고 보살피며 아동들에게 한국어와 모국어를 교육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중 언어, 이중 문화를 가르치며, 수많은 시간을 산업단지에서, 공장 기숙사에서, 원룸에서, 혹은 한적한 곳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이웃과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 1.5. 이주민 가족과 비자

국내에는 수십개의 다양한 비자와 체류자격이 있다. 또한, 비자라는 것이 각각의 개인의 상황과 소득에 따라 나누어지기도 하고, 하나의 비자에도 수십개의 형태로 구분되며, 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한국말에 능숙한 한국인에게 조차도 단번에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가족들이 가장 많이 유입되어 들어오는 비전문취업(E9)비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한국에서 어떤 과정을 비자를 통해 주로 겪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아시아 국가에서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 외국인 이웃들의 경우, 처음에는 홀로 한국에 들어오거나, 가족 중 1인이 비전문취업(E9)비자로 들어오게 된다. 비전문취업(E9)비자로 들어온 이웃들은 3년을 계약하고, 추가로 1년 10개월을 계약하면, 총 4년10개월을 국내에 머물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업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없으며 직장선택에 대한 제한이 있다. 운이 좋게 안정적인 직장을 만난다면, 외국인 이웃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국내에서 다시 성실근로자로 재취업 할 수 있다. (<그림 7> 이주민 가족의 CASE : 경제활동가능인구 1인이 한국에 있고 배우자 자녀가 본국의 있는 경우) 이후 5년이 지나면 비전문취업(E9)비자의 외국인 이웃들은 외국인숙련기능인력(E7)비자로 변경이 가능한데, 외국인숙련기능인력(E7)비자로 변경하면 고국의 가족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함께 살 수 있게 된다. 이때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이웃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반(F3)비자를 받게 된다. 중국인 동포나 고려인 동포의 가족들도 외국인 동반가족들도 비슷한 상황을 거치는 경우도 있다. 동포들은 재외동포(F4)비자, 방문취업(H2)비자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고, 동포 비자는 입국 후에 직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가족들도 동반(F3)비자 혹은 방문동거(F1)비자를 받고 오게 되기도 한다.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체류기간
E-9 (비전문취업)	특「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개 송출국가 국민으로서 제조업 등 단순노무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	3년 (연장 가능)
E-7 (특정활동)	특정 분야에서 전문, 준전문, 일반기능, 숙련기능인력으로 근무하는 사람	3년 (연장 가능)

###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및 자녀의 경우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체류기간
F-3 (동반)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 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	동반기간 (취업불가)

###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경우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체류기간
F-4 (재외동포)	「재외동포법」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	3년 (단순노무 불가)
H-2 (방문취업)	18세 이상 7개 국적의 동포로서 모국 방문 또는 취업(46개 업종)하려는 사람 (중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3년 (연장 가능)

### 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의 경우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체류기간
F-3 (동반)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 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	동반기간 (취업불가)
F-1 (방문동거)	친척방문, 가족 동거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년 (취업 불가)

## 거주 비자와 영주권 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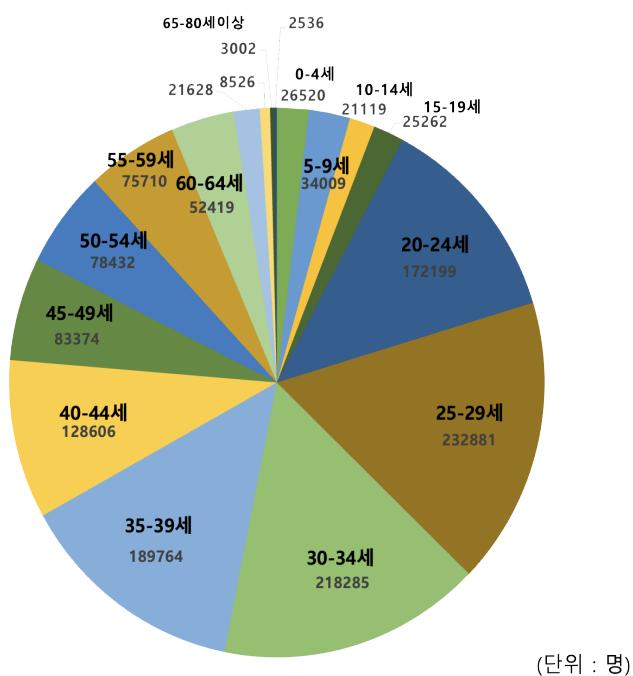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체류기간
F-2 (거주)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장기체류자, 난민인정자 또는 일정요건을 갖춘 투자자	5년 (취업 일부 제한)
F-5 (영주)	내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으로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음	영구 (취업제한 없음)

<표 1>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길잡이 비자 네비게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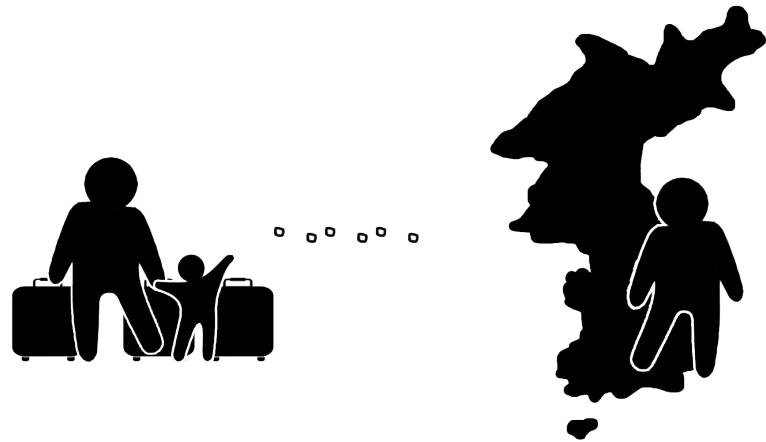
2022년 12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자료.

그러나 경제활동가능인구와 함께 들어온 동반(F3)비자를 받은 외국인 가족들은 국내에 함께 거주할 수 있지만 경제활동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이웃들의 경우, 가정을 꾸리고 보살펴나가는 20대에서 40대의 인구가 가장 많다. 국내의 체류하는 연령별 외국인 주민들의 나이대를 살펴보면, 25-29세의 인구들이 가장 많고, 31세-34세의 인구가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35-39세의 인구가 그 뒤를 따른다. (<그림 6> 등록외국인 시군구별·연령별 현황 2024년 3월 31일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들의 나이는 대부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생애주기에 있다. 아이들을 키우고 돌보는 생애주기에 있는 20-40대 사이의 외국인 주민들은 가족들을 돌보며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을 하는 시기와 겹친다.

실제로, 외국인 이웃들과 가족들은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의 시기와 겹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며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혹은, 한국살이가 어려워 경제적인 여건과 체류기간의 불투명함으로 인해 외국인 가족들은 돌봄이 필요한 아주 어린 자녀들을 홀로 본국에 두고 오랜기간 떨어져 지내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림 8> 이주민 가족의 CASE :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와 배우자가 한국에 있고 어린 자녀만 본국에 두고 오는 경우) 또한, 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이주민 가족들은 오랜만에 같이 가족들과 살게되어 기쁘지만, 동시에 낯선 땅에서 자녀들이 공부하며 자라는 기간 동안이라도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을 인정 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비자를 연장하며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기도 했다.



<그림 6> 등록외국인 시군구별·연령별 현황 2024년 3월 31일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고 도표화 함.



<그림 7> 이주민 가족의 CASE : 경제활동가능인구 1인이 한국에 있고 배우자 자녀가 본국의 있는 경우 (E9비자인 경우가 다수) 그림 : 신현진



<그림 8> 이주민 가족의 CASE :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와 배우자가 한국에 있고 어린 자녀만 본국에 두고 오는 경우 (E7비자-F3비자) 그림 : 신현진



<그림 9> 이주민 가족의 CASE : 가족들이 모두 함께 한국에 있지만 경제활동이 1인만 가능한 경우 (E7비자-F3비자) 그림 : 신현진

왼쪽 페이지 하단의 그림에서처럼, 국내에서 살고있는 외국인 가족들 중에는 주요 경제활동가능인구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비자이고 가족이 동반(F3)비자를 받으며 경제활동인구 1인이 혼자 가족구성원 모두를 책임지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9> 이주민 가족의 CASE : 가족들이 모두 함께 있지만 경제활동이 1인만 가능한 경우) 즉, E7비자와 F3비자를 받은 이주민 가족들은 가정 내에서 1인만 경제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경제적인 제한으로 다가오는 데, 이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비자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뿐이다. 외국인숙련기능인력(E7)비자에서 5년 이상 머물며 거주(F2)비자로 업그레이드 한 후, 저축, 한국어 사회통합프로그램, 소득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배우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영주(F5)비자를 따야 가능해지기 때문에, 삶의 경제적 제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기도 한다. (<그림 10> 이주민 가족의 CASE : E7비자 - F3비자의 가정에서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는 경우)



<그림 10> 이주민 가족의 CASE : E7비자 - F3비자의 가정에서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는 경우 그림 : 신현진

동반(F3)비자의 경우, 국내에서 예외적으로 인구소멸지역이나 농업에서 단기간 일손을 돋는 계절 근로자로 근무가 가능하고 단기로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다시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한, 동반(F3)비자를 통해 들어온 이주민 가족의 경우 대학의 학력을 얻어 유학 어학연수(D2)비자로 바꾸면 주 20시간 정도의 아르바이트가 가능하지만, 대학 등록금이라는 큰 부담이 있어 선택을 자주 하지 않게 된다.

즉, 이주민들은 비자의 경제적 제한으로 인해 가족 내에서 일정기간 어쩔수 없이 홀로 가정의 경제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과 자산, 언어능력 등을 기준에 맞추며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여기에 가족과 아이들의 보육시기가 겹치면서 더 많은 부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비자는 외국인이 이해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조건이 까다로우며, 법이 바뀌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려운 분야이지만,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 1.6. 이주배경 자녀의 교육과 한국어

외국인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한국어는 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돋는 중요한 도구이자, 정주하여 살아가기 위해 체류기간을 보장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이기도 하다. 외국인 가족과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며, 외국인 가족들과 자녀들이 자아를 개발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한국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교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언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쓰면서 자연스럽게 느는 것이며, 외국인 가정 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외국인 부모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한국어를 알아가는 입장이라는 점과 외국인 가족들의 생계는 저임금으로 인해 수많은 시간을 경제적인 부분에 집중하기도 한다는 점 때문이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이웃들은 저임금으로 노동에 장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며, 2개의 언어와 2개의 문화를 함께 배우며 살아가게 된다.

또한, 이주 배경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자라면서 한국어를 배우며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대학을 갈 때, 정보를 찾기 어려워 하기도 했다. 게다가 한국은 대부분의 많은 주요 대학교가 서울 중심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경기도 외곽이나 지역, 혹은 지역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살고있는 이주민들은 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편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주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차별과 차이를 겪으며 살아가기도 했다.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돌입하였지만, 짧은시간 갑자기 변해왔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의 경험을 되돌려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2010년대까지만 해도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같은 반에서 함께 공부하고 살아가는 외국인 친구는 거의 없었다. 한국사람들은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는 교육의 시기, 자연스럽게 외국인 이웃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경험이 적었을 것이라 짐작한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웃들의 인구는 빠르게 늘었고 급속도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인 한국의 사회 속에서 이주배경아동들은 불가피하게 차별이나 차이를 겪기도 한다.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 결과, 이주배경아동들은 한국인 친구들이 많기보다는 비슷한 배경의 외국인 혹은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친구들과 관계에서도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던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시설에는 다문화 관련 교육을 진행하며, 학교 내에서도 외국인 학생들과 한국인 학생들의 거리감을 좁히려는 시도들이 있기도 했다.



## 2. 인터뷰를 통한 사례연구

### 2.1. 경기 남부 지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가족들의 인터뷰

인터뷰를 통한 사례연구에서는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가족들을 직접 만나 한국에서의 삶에 대하여 나눈 이야기들을 기록해보았다.

#### 인터뷰.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에 살고 있는 스리랑카 출신 아킬라와 가족

질문 :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나요?

답 : 우리나라에서 ESB에서 라는 시험 있어요. 이 시험 합격하고, 또 다른 여러가지 시험있어요. ESB라는 시험 합격하고 공부하는 필기시험 합격하고 다음에 운동하는 시험 있어요.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고르는 것 있어서 그후에 회사에 나오는 거예요.

질문 : 한국에서는 화성에 계속 사신 건가요?

답 : 네, 한국에서 와서 계속 올 때까지 양감면에 살고 있어요.

질문 :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 : 스리랑카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 가족들도 여기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기도 해요.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친구가 외국에 나갔다오면 가족들이 모두 잘 먹고 살 수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5년만 있다가 오려고, 나라에도 조금만 있다가 돌아 갈려고 했는데, 살다보니까 한국도 좋은 것 같아서 계속 여기서 살고 있어요.

질문 : 고향은 어디인가요?

답 :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태어났어요. 콜롬보는 스리랑카 수도예요. 태어나서 23세까지 콜롬보에 살았고 그 이후에 한국에 왔어요.

질문 :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떠셨나요?

답 :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처음 올 때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서요. 그리고.. 우리는 언어도 잘 몰라서 한국말도 잘 몰라서.. 어쨌든 처음 온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 때 시간 날 때마다 한국어 배우고 익숙해져서... 지금은 좀 괜찮아요.

질문 : 이동한 경험에 대하여 여쭈어보고 싶어요.

답 : 한국에 들어오자 마자 너무 슬펐어요.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지내야해서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 여기 돈벌려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돈 벌고 빨리 가족들 보러가자 그 생각했어요. 돈 빨리 벌고 돌아가서 가족들이랑 좋은 생활하고 싶어서 빨리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 생각하면서 참았어요.

질문 : 한국 처음 왔을 때는 어떻게 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 인천 공항에 처음 오면, 한국 노동부 있잖아요. 노동부에서 우리 여러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ESB센터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3일동안 한국어 공부하고,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려주고, 범법들 한국 생활의 규칙들 얘기해주고, 3일동안 있어야 해요. 3일 끝나면 회사 사장님의 여기 와서 여기서 검사받고, 사장님의랑 같이 일하게 되는 회사에 도착하는 거예요.

질문 :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답 : 내가 플라스틱 회사에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음.. 우유 상자 같은 플라스틱 상자 있잖아요. 그런 상자요. 그런 상자에 회사 이름 찍는 거 있잖아요. 인쇄요. 인쇄하고 있어요. 플라스틱 상자에 이름을 손으로 인쇄하는 거예요. 기계말고 손으로. 페인트로 손으로요. 상자 자체도 회사에서 만드는 데, 제가 있는 자리는 인쇄하는 자리에요. 아침 8시에 시작하는데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일하는 거예요.

2012년 여기에 왔어요. 12년동안 계속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같은 일 하고 있어요.

질문 : 이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답 : 처음에 올 때는 기계 앞에서 상자 포장하는 거 한 달 두 달만 일 했는데, 그때 여기 회사에 옆자리에 인쇄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인쇄하는 자리가 계속 일도 있고, 힘들어도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계속 왔다가 갔다하고 사장님한테 제가 상자에 인쇄하는 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고 1년동안 많이 배웠어요. 1년동안 일을 좀 배우고 지금까지 10년동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질문 :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30분에 1500개를 프라스틱 박스에 이름을 페인트로 인쇄 해요. 양쪽 다 인쇄하면 3000개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바꾸는 거예요. 또 다시 바꾸는 거예요.

질문 :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힘들지 않았나요?

답 : 많이 힘들었어요. 한국말. 얘기하는 게 잘 안 들려서, 무슨 이야기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처음에 올 때는 그 때는 스리랑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말 이야기 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그 때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질문 : 한국에 오기 전에 스리랑카에서 한 일은 무엇일까요?

답 : 나라에서는 여러가지 일 했어요. 회사에 다녔어요. 그런데 일이 다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다녔는데, 다 잘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월급도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마지막에 다니는 회사에 2년동안 일하고 있을 때, 친구한테 이런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것에 대하여 들었어요. 한국에 갈 수 있다고, 시험보고, 친구한테 이 말 들어서, 시험보려고 신청했어요. 신청하고 그다음에 시험보고 시험 합격하고, 손으로 하는 신체 운동 시험 합격하고, 필기시험하고 실기시험 모두 합격하고 모두 여기 오게 되었어요.

질문 : 일하면서 힘들거나 어려웠던 것들 있을까요?

답 : 일 하는 건 사실 안 어려운 일들이 없어요. 일할 때는 계속 힘들어요. 그래도 일 해야되요. 먹고 살려면 일 해야되요. 세계에 공짜는 없어요. 일 하고 돈도 조금씩 벌고… 그리고 지금 가족들에게 보내는 돈도 좀 적지만, 조금씩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 계속 일하고 있어요.

어렵지만 힘들기도 해요. 우리들이 일하는 곳들이 중소기업이고 대부분 가족 회사이잖아요. 대기업이나 그런 곳이면 덜 힘들 수도 있는데 가족들이 운영하는 곳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차피 우리 회사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질문 : 혹시 한국에 살면서 차별받았던 경험들이 있었나요?

답 : 네, 그런 경험들은 많이 있어요. 회사 일할 때는 그런것들이 많이 있어요. 외국사람보다는 한국 사람에게 회사에 지원해주는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점심이나 먹을 것들은 한국사람들에게 맞는 음식들이 나와요. 어차피 가족 회사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하는거예요.

질문 : 비자는 현재 어떤 비자를 받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 : E74 비자에요. 이거 받고 한 6년 정도 되었어요. 가족들은 F3동반비자예요.

질문 : 어디에서 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 : 회사 기숙사에서 살고 있어요. 옆에 건물에는 한국 사람도 살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한 쪽에 살고 있어요. 옆 방에는 다른 사람도 살고 있어요. 저희 올 때는 스리랑카 사람들은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스리랑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질문 : 가족과 동료분들도 같이 기숙사에서 사는 데,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동료들과 같이 살아서 더 돈독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 : 우리는 같이 살아도 다른 문이 있어요. 다른 문 있어서 다른사람들은 다르게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달라서 괜찮아요. 여기도 다른 문 하나 있어요. 여기는 작은 방만 있고 거실 하나만 있어요. 비오면 여기 물 계속 여기 물새기도 해요.

질문: 가족들과 함께 살고 계신데 가족이나 자녀를 키우기 위해 하는 일들이 있나요?

답 : 아이 키우는 것들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저는 한국어만 가르치고 있고 스리랑카어는 아직 못가르치고 있어요.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냥 한국어 배우고 한국어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해야할 것 같아요. 어차피 아이가 한국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대학교 갈 때까지. 그래서 스리랑카어는 조금 천천히 배워도 되요. 아마 아이 중학교 갈 때까지 한국어 잘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어 가르치는 것은 엄청 어려워요. 내가 발음이 많이 좋지 않아서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랑 하고 있어요.

질문 : 간혹 육아를 도와주러 가족들이 한국에 오기도 하던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 : 가족이 도와주러 오는 분들이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 아빠는 건강이 안 좋으세요. 아빠는 건강 많이 안 좋고 엄마는 건강이 많이 안좋아요. 그리고 여기 와도 비자 때문에 3개월 밖에 못 머물려요. 오셔도 도움도 많이 못되고, 여기 오셔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도 못 되요. 부모님 오시면 다른 집 찾고 그래야 해서. 기숙사 사용하는 비용으로 회사에 30-40만원정도 40만원 가까이 금액을 내기도 해요.

질문 : 일 끝나고 집에서 하는 일이 있나요?

답 : 회사에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많이 힘들어요. 아내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혼자 살 때는 일 끝나면 집에 와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했는데 아내가 도와주고 있어요. 그냥 여기 오자마자 샤워하고 3명 같이 다 밥 먹고 핸드폰 보고 9시에 여기 자는 거예요. 가족들 있어서 좀 편해요. 나도 가족들 온 지 3년 정도 됬는데요. 3년 전에는 일 끝나고 기숙사 오면 요리 준비하고 내일 먹을 것들 준비하고 청소하고 조금 쉬다보면 저녁 12시예요.

질문 : 한국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어떠한가요?

답 : 언어 배우는 게 가장 어려워요. 언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나라에 익숙해지지 못해요. 언어를 빨리 배워야 해요. 나도 2017년에 사회통합프로그램있는데 그때는 발음이 안좋아도 친구들이랑 한국말 서로 많이해서 조금씩 늘었는데 요즘에는 센터도 못나가고 회사에만 있어서 한국어가 안느는 것 같아요. 여기는 가족회사라서 회사에서도 한국어를 자주 안쓰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3-2명있어서 한국말을 잘 안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스리랑카 친구들 만나면 스리랑카 말을 쓰게 되더라고요. 한국말 너무 안 느는 것 같아요.

질문 : 산업단지내에서 살고 계시는데, 주변에 아이들도 많이 없기도 하고 교육하는데 어렵지 않나요?

답 : 여기 산업단지에는 아이들도 많이 없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이라서, 그런거 차별하는 거 좀 있어요. 어쩔 수 없는데, 아이는 한국말 조금 할 수 있는데 숫자를 세거나 하는 것들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맨날 집에 오면 이 친구는 나랑 안 놀아요, 이 친구는 나랑 말 안해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어차피 해결 할 수 없어요 우리도 그냥 마음만 만족하는 거예요.

질문 : 아이가 한국에서 어렵다고 하는 점 있나요?

답 : 아이가 어렵다고 하는 지점은 학교에서 친구랑 같이 못 어울리는 점이예요.

질문 : 자신을 돌보는 시간 있나요?

답 : 힘들고 피곤하지만 쉴 때는 그냥 영화보는 거예요. 그냥 인도 영화 그런거 좋아하고 한국영화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일 목적은 아이가 대학교까지 잘 배우는 거예요.

질문 : 한국에서 힘들었던 경험과 내가 극복했던 방법들이 있나요?

답 : 제일 힘들었을 때는 내가 위에서 떨어졌을 때에요. 다쳤어요. 그때 엄청 많이 부러져서 6개월 동안 못일어나서 계속 침대에만 있었어요. 그때 내가 이거 힘내서 이거 나 할 수 있다 할수 있다 기억하고 약먹고 잘 도와주고 처음에는 운동 안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조금씩 걸어서 걸어서 지금 익숙해지고 있는거예요.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질문 : 비자에 대하여 여쭈어봐도 될까요?

답 : 우리 비자 바꾸는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엄청 힘들어요. 한국에 일하는 것보다 비자 계속 연장하는 거, 비자 다른 걸로 바꾸는 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수원 출입국가서 비자 연장하는데 갈 때마다 오래 기달려야 해요. 조금만 문제있어도 비자 연장이 잘 안되요. 우리 벌금 200만원 이상 나오면 본국에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우리도 한국사람들과 똑같이 세금 다 내고 있어요.

질문 : 지금 머물고 계신 한국은 느낌이 어떠세요?

답 : 한국에 살고 있는 건 좋아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 마음도 좋고. 그리고 혜택 많이 있어요. 살면서 할 수 있는 혜택이나 도시에서 살면서 할 수 있는 혜택이요. 우리나라보다 많이 있어서, 여기 사는 거 좋은 거예요. 그래도 한국에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월급 한 명만 일하고 있잖아요. 월세도 내고, 옛날에는 가족들이 오기전에 돈 많이 모았는데, 지금은 돈 모은 것도 없어요.

질문 : 한국에서 기회가 된다면 배우고 싶은 것들도 있을까요?

답 : 배우고 싶은 건 없는데, 기회가 되면 비자 바꾸는 것들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되면 F5비자로 바꾸고 싶어요. 지금은 비자 바꾸기 위해서 1년마다 연장해야 하고 내가 계속 아프거나 힘들어도 회사에 다녀야해요. 휴가 받아도 안되요. 만약에 고향에 한 달 나갔다 오면 한 달 월급 못 받잖아요. 그럼 연봉이 맞지 않아서 비자 연장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연봉이 맞아야 해서 년 4,000만원 정도 이상 근무하고 수익이 있어야 해서요. F5비자로 바꾸면, 그냥 10년마다 연장만 하면되고 상관 없는 거예요. 아이들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자랄 때 혜택 많이 있어요. 아니면 아이들이 학교 다닐때 지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지금 법이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진짜 비자 연장하고 바꾸는게 제일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비자 바꾸는 거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지금은 그나마 비자 바꾸는거 쉬워졌는데 연장하는 것들은 어려워요.

질문 : 한국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답 : 한국에는 지금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외국 사람들한테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잖아요. 그때 한국사람들한테는 지원이 있는데 외국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없어요. 이런게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 현재 소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 : F5 비자 받고 아이들이 대학교까지 한국에서 잘 다니는 것이예요. 아이가 대학갈 때까지 한국에서 잘 살고 싶어요.

## **인터뷰 : 화성시 장안면에서 살고 있는 네팔 출신 고빈더와 서루미라 가족**

질문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답 : 저는 네팔에서 온 고빈더라고 합니다. 제 나이는 32살이고요. 한국에서 산지 11년 됐습니다. 한국에 지금 경기 화성시 장안면에서 살고 있습니다.

질문 :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됐나요?

답 : 저는 일하고 싶어서 한국어 조금 배우고 나라에서 한국 시험 보고 여기 들어왔어요. 일하는 목적으로 돈벌려고 왔어요.

질문 :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답 :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나이가 21살 있거든요. 그때 제가 공부하고 있었어요.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문 봤어요. 한국어 취업비자 광고 나와 가지고 한국에서 돈벌고 돌아가면 잘 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부 멈추고 여기 들어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질문 : 계속 화성에서 사셨나요?

답 : 네. 계속 화성에서 11년 동안 살았어요. 6년 반 정도는 화성 구문천리에서 일했고 거기 그만두고 현재 회사로 이동했어요.

질문 : 처음 한국 왔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답 :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말도 모르고 딱 처음 왔을 때는 첫번째는 한국말도 몰라서 회사 들어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의사소통도 모르고 일도 빗자루 하는 것 까지도 못했어요. 천천히 자꾸해서. 아마 1년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익숙해진지요. 1년정도 걸려서 좀 괜찮아졌어요.

지금은 한국말 알아 듣고 한국에 산지 오래되서 지금은 괜찮아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한국어. 두번째는 문화 아예 몰랐어요. 위에 사람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그거 몰랐어요. 처음에 회사 들어갔을 때 네팔사람 1명 밖에 없었어요. 주변에도 네팔사람 한 명 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일할 때도 말 몰라서 너무 빨리 말하잖아요. 말하면 반대로 일하고 실수도 많이 있었어요.

질문 : 같이 사는 사람이 있나요?

답 : 지금은 한국에 10년 동안은 혼자 살고 10년 지나서 와이프 한국에 온지 1년 반 되었어요. 가족이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되었어요. 여기서 4년 10개월 E9비자 끝나고 나라 돌아가서 결혼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질문 : 어떤 일 하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답 : 지금 자동차 만드는 회사예요. 큰 차 포크레인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거 하는데요. 제 일은 용접사예요. 용접 많이 해요. 우리는 반통 물건 만드는 반통 많이 만들고, 자재가 들어와요. 자재 들어오면 부품 조립해서 다 만들고 해요. 포크레인 차만와요. 따로와요. 자재 부품들도 다 따로오고. 우리는 거기에 반통 만들어서 다 조립하고, 그리고 완성해서 보내는 거예요.

질문 : 일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 너무 바쁠 때는 10시간 반 일하고요. 안 바쁘면 8시간 일하고 있어요. 8시반에 출근해서 저녁 8시반까지 일하고요 바쁠 때는요. 아니면 5시30분에 끝나요.

질문 : 일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

답 : 용접은 한국와서 처음 배웠어요. 옛날에 회사도 탑차 만드는 곳이였거든요. 6개월 동안은 본드로 판넬 붙여서 만드는 곳이였는데요. 6개월 뒤에는 디파트 체인지해서 용접 시작했어요. 1년동안 용접 안하고 도와주고 보고 그다음에 용접 시작했어요. 여기서 배웠어요. 용접 처음에 할 때 많이 울었어요. 밤에 못참고 많이 울었어요. 눈이 아파서요. 햇빛 때문에 눈물이 계속 나요. 다른거는 괜찮은데. 햇빛 있을 때 겨울에는 괜찮은 데 여름에 특히 안 좋으면 눈물이 많이 나요.

용접 일은 10년 정도 되었어요. 자격증은 따고 싶은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에 딸려고요. 지금은 아내가 임신해서 더 신경써야해서 내년에 자격증 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E9비자는 제가 회사를 바꾸고 싶다고 바꾸는거 어려워요. 고용노동부에서 회사 찾아주고 거기 회사가서 면접 보고 그렇게 바꿔요. 우리 E7비자는 달라요. 우리 고용노동부랑 상관없이 바로 출입국사무소 가서 자기가 회사 찾아야 되요.

질문: 처음 용접하는 한국에서 배울 때 어렵지 않았어요?

답 : 용접 너무 힘들었어요. 용접할 때 눈이 너무 아파요. 밤에 못참고 눈을 떠도 아프고 눈을 감아도 아파요. 밤에 하나 어떻게 했으면 일할 때 밤에 눈이 너무 아팠어요. 냉장고 안에 아이스 찾으려고 일어났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못하고 눈 감지도 못하고. 벽에 더듬더듬 손으로 가서 냉장고 찾아서 아이스 찾았어요.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질문 : 한국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답 : 일은 안했어요. 공부만하고 21살 때 왔어요. 12년정도 되었지요. 제가 공부도 하고 일도 조금 했어요. 네팔에서는 정부업무 회계 컴퓨터 일 했어요. 세무소에서 일했어요. 거기는 직접 시험보고 하는 거 아니라서... 거기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 네팔은 3년동안 일하는 거 있어요. 계속 일하는 거 아니고 이 사람 3년동안만 필요하다하고 3년동안 일했어요. 도와주는 거 3년동안 도와주는 거 했어요.

질문 : 한국에 살면서 고민들이 있나요?

답 : 제일 힘든 거는 저는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 하는 것은 회사 옮기는 거 회사 바꾸는 거 제일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불법 친구들도 많이 늘고 있어요. 그거 방법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E9비자가 3년 계약을 먼저 하거든요. 그리고 연장 1년 10개월 연장하고요. 만약에 3년동안 회사쓰고 회사가 일이 없으면 3년동안 쓰고 집에 보내고.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래요. 그런것도 있어요. 만약 일이 없어서 3년 다 안 끝나고도 한국에 머물고 방법 알려줄 수 있는 회사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거 방법이 없어서 사람들이 불법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음.. 그리고 지금 좋아진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많이 임업하고 야간도 많이 하고 몸은 힘들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52시간 정해진 시간 있어서 그건 좋아요.

지금 한국의 회사가 경제가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회사 찾고 있는 친구들도 3개월안에 다른 회사 들어가야되는데 회사를 못찾아서 불법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거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친구들은 일 잘했는데도요. 마지막 시간에 비자 어떻게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힘든 일하는 회사도 들어가고 들어가서 사고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질문: 한국에 온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답 : 우리는 그때 로컬 도메스틱 비행기도 있는데, 저는 룸비니에서 카트만두 버스타고 왔고, 카트만두에서 2-3년정도 카트만두에서 살았어요. 우리 집에서 차타고 가면 8시간 걸릴 거예요. 카트만두에서 한국까지 오는 것은 대한민국까지 직항 있어서 그거 타면 5시간 반 6시간 걸려서 인천에 왔어요. 인천 공항에서 내리고 안산에서 3일동안 교육 조금 받고 회사사람들 와서 데릴러 왔어요.

질문 : 한국 첫인상은 어땠어요?

답 : 느꼈어요. 한국 되게 깨끗하고 제가 5월달에 왔는데 5월달에는 시간도 날씨도 괜찮고 너무 좋았어요.

질문 : 일 하는 곳에서 네팔 친구들이 몇 명이 있나요?

답 : 일할 때 네팔 사람 두 명 있어요. 우리는 5명 같이 왔어요. 1년전에 형 2명있고 우리는 5명 같이 왔어요. 총 7명 있어요. 저는 회사 바꿨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사 옮겨서 원래 있던 곳은 네팔 사람 15명 있었어요. 지금은 두명 있어요.

질문 : 네팔 얼마나 자주 왔다갔다 하셨나요?

답 : 그동안 4번정도 네팔에 왔다갔다 했어요. 부모님 다 계시고. 딸 하나 큰 딸 하나 네팔에 있어요. 큰 딸이 다 음달에 한국 오기로 했어요. 다 서류 만들어서 보내서 그저께 사서 9월 12일에 도착하기로 했어요. 장모님이랑 제 딸. 우리 딸. 우리 큰 딸 4살이에요. 한국나이로는 5살이에요. 너무 보고 싶어요. 지금 동생 얘기하면 딸이 알고 있어요. 엄마한테 ‘같이 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큰 딸이 한국에 못 온 이유는 제일 문제는 제가 비자 E7이잖아요. 제가 영주권 비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거든요. 제일 문제는 여기 학교 다니는 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네팔어랑 영어랑 공부하거든요. 여기는 영어는 많이 없지만 한국어는 많이 하잖아요. 여기 오래까지 있으면 좋긴 하는데 거기까지 확실하지 않아서 아이 공부 때문에 아이만 네팔에 있고 떨어져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영어 학교에 보내도 되는데 제가 혼자 벌고 와이프도 일 못하고, 돈이 모자라요. 그리고 가족도 봐야되서 돈이 모자라서 그런 문제도 있어요.

질문 : 한국에서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나요?

답 : 어.. 많이 있어요. 여기서 복지센터 주민센터 많이 다니니까 운동장 지금 여기 학교 있잖아요 발안 제암초등학교 거기서 배드민턴 클럽에서도 매주 토요일 마다 배드민턴 해요. 거기서 배우고 있어요. 네팔 친구들 5명 있어서 배드민턴 클럽 같이 해요. 매주 토요일 마다. 그리고 문화터함공간 서로에서 봉사하고 친구들 만나고 와이프도 춤추고 행복한 기억이 많아요.

질문 : 한국에서 익숙하지 않았던 문화들 있어요?

답 : 딱 생각나는건 없는데. 우리나라랑 좀 다르기는 해요. 여기는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하는 것들. 그리고 약속 딱 지켜야되요. 우리나라 있을 때는 3시에 만나자고 하면 3시 30분이나 4시에 가도 괜찮아요. 기다리는 사람도 괜찮고 가는 사람도 괜찮아요. 여기는 약속 딱 지켜야 잘 지켜야 해요. 그거는 좋아요.

다른거는 신기한 것은 도로. 여기는 운전석 조수석 달라요. 그거 신기했어요. 한국 도로랑 네팔 도로 달라요. 여기는 왼쪽으로 핸들 있잖아요. 우리는 오른쪽으로 있어요. 제가 한국와서 처음 운전할 때 처음 한번 반대로 갔어요. 그래서 사고 날 뻔 했어요. 네.. 헷갈려요. 그리고 버스탈 때 카드 찍고 타는거 그런거 없었어요. 그런거 조금은 시내에서 한 두개 버스만 타도 그렇게 되는 거 신기했어요. 처음에. 계속 생각하면 많이 있는데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잘 안나네요.

질문 :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살고 다시 가족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답 : 제가 비자 바꿀 때 열심히 했어요. 회사에서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리고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외국인 복지센터랑 회사에서 안 도와줬으면 제가 못했을거예요. 제가 비자가 1달 남았었어요. 1달 남았을 때 E7으로 바꿨어요. 회사도 외국사람 저만 있었어요 그때. 사장님도 잘 몰랐어요. 바꾸는 방법이라던가. 제가 복지센터에 가서 어떻게 바꾸는지 물어보고 회사에서 이야기하고, 회사에서 서류 만들어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원래 공부 잘 안했어요. 한국어를 공부를 미리 했어야 했는데 한꺼번에 1달 남았는데 서류 만드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비자 받는게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1달 남았을 때 비자 나왔구요. 그리고 다시 가족 와이프 데려오는 방법 찾았어요. 그때 제가 지금은 E7바꾸는거 쉽지만… K포인트 있어요. 그때는 1년에 외국사람 중에서 1000명정도 뽑아요. 지금은 30,000명 뽑아요. 지금은 쉬워요. 우리는 그 포인트가 높아서 우리는 점수 만들기 어려웠어요. 제가 72점 있는거 사람 받았어요. 1년에 1000명 뽑았는데, 1년에 4번 250명씩 4번 뽑고 그랬는데. 저는 딱 마지막 250명 중에서 딱 받았어요. 전체 외국인 중에서요. 열심히했어요. 그때는.

와이프 데려올 때는 유튜브 보고 검색하고 다른 친구들 영주권 받는 친구들 있어요. 몇 명.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서류 만드는지. 다 해줬어요 많이. 회사에서 서류 만들어서. 회사 사장님이 이름으로 조대해서 여기 데려왔어요. 서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한국말 조금 알아도 인터넷에서 보는 거 조금 어렵잖아요. 한국사람도 잘 몰라요 이거 방법. 먼저 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방법 좋은데 또 여기에 친구 없으면 그거 좀 힘들어요.

질문 : 고향은 어디에요?

답 : 룸비니. 네팔의 부처님 태어난 곳에서 가까워요.

질문 : 네팔에 룸비니에서 태어나셨나요?

답 : 위에 산 쪽에 있었어요. 거기서 태어났고요. 밑에는 여기와서 돈벌고 땅사서 집만들고 7년 되었어요.

질문 : 가족들이랑 살 때 걱정거리들이 해결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나요?

답 : 제가 장모님 부르잖아요. 그럼 3개월 비자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3개월 비자 받고 한 두 달 정도는 연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못한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관광비자로 오니까 3개월 이상은 안된데요. 가족들 오면 여기 저기 많이 보여주고 많이 놀고 싶은데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좋은 점은 장모님 데려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는지 알고. 장모님 오면 장모님 오면 가족이니까 딸이니까 아내가 좋아하고. 저도 일하다가 가족도 보고 일도 하고 해야하는데. 장모님이 오면 조금 걱정이 덜잖아요? 그런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질문 : 계속 한국에서 살고 싶나요?

답 : 제가 잘 되면 한국에서 사는 거 생각도 있긴 해요. 제가 E7비자 받은 거 얼마 안 됐어요. 1년 반 밖에 안되었고. 법이 바뀌어서 우리 영주권 받는 방법 좀 수월해지면 오래 있고 싶긴 해요. 그런데 없으면, 10년 안에는 나라 다시 돌아가고 나라 다시 돌아가서 회사 같은 거 만들고 그런 생각 있어요. 여기 우리 일하잖아요. 기술도 배우고 일도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먹고 살게 해주기도 하고 돈벌고 나라도 경제 조금 올라가고 그거 생각 있어요.

우리가 제일 문제는 여기에서 돈벌고 가족들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여기 살면서 자격증 같은거 있잖아요. 유럽이나 그런데에도 비자있잖아요? 거기 캐나다 가면 아이 태어나면 국적 주잖아요? 한국은 그렇지 않지만,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까지 있으면 그때는 영주권 준다 그런 방법 있으면 우리도 정착하면서 살 수 있는데요. 우리 문제는 비자 문제예요. 비자가 언제까지 가능할 지 모르니까. 어린 딸이 있어도 한국에 데려올 수 없는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오래까지 있을려면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가장 문제예요.

## 서루미라 인터뷰

질문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답 :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에서 온 서루미라입니다. 제 나이는 31살입니다. 한국에 온지 1년 반 되었습니다. 저는 살고 있는 곳이 경기 화성시 장안면입니다.

저는 한국에 많이 오고 싶었어요. 결혼한지 4-5년 동안 살았는데 같이 못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 가서 남편이랑 가족이랑 같이 사는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오게 되었어요.

질문 : 한국 오니까 어때요?

답 : 많이 달라요. 문화도 많이 다르고. 집에 있으니까 심심해요. 딸 생각 많이나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적응해서 혼자서 공원 갈 수 있으니까 친구도 볼 수 있으니까 주소도 조금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질문 : 한국어 어디서 배웠어요?

답 : 저는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배우고 집에서도 배우고, 반딧불 봉사단에서도 배우고 수경 선생님께 배우고 한 두 달 정도 배웠어요. 처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배우고 그 다음에 복지센터에서 배웠어요.

질문 : 한국에 머물고 있는 곳은 어떤가요? 한국의 첫인상은 어때요?

답 : 우리나라에서 공원 많이 없어요. 공원 많이 없어서 운동하고 싶은데도 많이 없어요. 산책하고 싶은데도 많이 없어요. 한국은 깨끗하고 지역마다 운동하는 장소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친절해요. 여기는 진짜 많이 친절해요. 임산부, 불편한 거 사람들 보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많아요. 네팔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괜찮아요. 버스 탈 때도 신기하고.

질문 : 화성은 산업단지가 많잖아요. 혹시 교통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세요?

답 : 처음에는 차 있어서 버스는 많이 안 탔었어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시장갈 때는 한국에서 버스타야 되서 그런거 알려줬어요. 먼저는 지도 보는 거. 버스 정류장 어떻게 찾는지 검색하고. 주소 찾는법 알려주고. 지금은 혼자 서울도 가서 올 수 있어요. 기차 안타서 못타지만 버스타고 서울도 갔다올 수 있어요.

질문 : 하루 일과는 어떠세요?

답 : 지금 아침에 5시반에 일어나서 6시부터 운동해요. 산책하고 운동하러 가요. 6시부터 7시까지 운동하고 남편 회사가면 다시 쉬고. 일어나서 또 밥 다시 만들고 먹고 다시 TV보고. 남편 회사로 4시쯤 걸어서 가요. 30분 정도 20분정도 걸려요. 걸어서. 그 다음에 남편 차로 집에 와요.

질문 : 집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답 : 저는 집안 일 음식도 하고. 집에서 네팔 음식 만들고. 한국 음식 만드는 것은 아직 안 배웠어요. 한국음식 먹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한국 음식도 먹고. 집에 세탁기 있어서 주말에 빨래하고. 손으로 빨래는 안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질문 : 집에서 하는 가사노동도 하루종일 해야 하는 데, 한국에서 하는 건 어렵지 않으세요?

답 : 어렵지 않아요. 집에서 하는 일 네팔에서도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15살 16살 지나면 아이들한테 집안일 가르쳐줘요. 그것때문에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힘들지만 익숙해서 힘들지만 힘들게 느껴지 않는 것 같아요.

질문 : 오랜만에 어린 딸을 만난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겠어요.

답 : 저는 많이 좋았습니다. 1년 넘게 많이 보고 싶어요. 1년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1년 넘으면 딸도 “엄마 언제 봐요? 나 언제 한국에 언제 와요?” 그런 말 해요. “엄마 어디예요 보고싶어요.” “어디예요? 보여주세요.” 같이 살고 싶어요. 딸이 궁금해하는 게 많아요. 전화 잘 안하면 “엄마, 한국 언제 제가 가요?” 그런 거 물어봐요. 그때 눈물나요. 남편은 “울지마, 다음달에 오니까” 그렇게 말해요.

질문 : 타국에서 아이를 낳는 거 무섭지는 않으신지 궁금해요.

답 : 그거는 우리나라보다 더 한국이 더 잘 되어 있어서. 먼저 번에는 우리 네팔로 돌아가서 낳자고 생각했었어요. 첫번째 얘기는 네팔에서 태어났고 둘째는 여기서 태어나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예요. 한국도 병원도 좋더요. 제가 병원에 데려갈 수 있고, 데려올 수 있고. 지금은 병원에서 하는 말들 80% - 90% 다 이해되잖아요? 그거 좋은 거 같아요.

질문 : 한국에서의 삶과 바램들이 있나요?

답 : 나도 생각해봤을 때 어머니 3개월만 비자 받을 수 있어요. 3개월마다 연장하거나 그렇지 않고 더 오래 같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나도 아이 태어나면 한두 달 어머니 보러 놀러 갈 수 없어요. 그때 1년 비자 많이 있으면, 가족도 만날 수 있고 어디 놀러가고 싶기도 하고. 좋은데도 보내드리고 싶고요.

질문 : 비자가 잘 해결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하고 싶나요?

답 : 저는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건 검사하는 거, 공장에서 일하는 거 하는 것도 하고 싶어요. 검사하는 일 포장하는 일하고 싶어요. 만약에 나라 가면 같이 부부가 같이 공장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 공부하고 싶은거 취미하는 것들이 있나요?

답 : 한국에서 저는, 원래 공부하던 거는 선생님 공부 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뭔가 배울 수 있다면 선생님하고 싶어요. 나중에 선생님하고 싶어요. 언어 트레이닝 하는 거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한국 교육 높아서 지금은 대학 끝났잖아요. 대학 끝나고 지금은 트레이닝하고 자격증 따면 좋겠는데 그거 한국에서도 교육 어떻게 있는지 교육이 높기 때문에 시간되면 선생님도 하고 싶어요.

아이들을 키우는지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게 좋을까 그런거 하고 있어요. 유치원 유아 교육 그런거 어떻게 하면 잘 교육할까 그런 고민 하는거 전공했어요.

질문 : 이중언어, 이중문화의 교육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실까요?

답 : 우리는 딸은 오래 안 살고 먼저 와서 놀고, 지금은 제 생각은 아이 태어나면 딸도 동생이 보고 싶어서 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3개월 동안 여기 있어서 3개월 이후에는 비자 없어요. 그 이후에는 나라 갔다가 다시 나중에 한국에 오는 거 그거 생각했어요. 나중에 좀 더 좋아지면 그때 생각하고. 지금은 아이한테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선 아이는 와서 그냥 좋은데 보여주고 2-3개월동안 같이 살고 그리고 같이 보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떨어져 사는게 쉽지 않은데 어쩔 수 없죠. 여기서 살아 갈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고 나중에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떨어져 살 수 밖에 없어요. 우리 딸 2년 반에 말했거든요.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말했어요. 한꺼번에 말이 다 나왔어요. 말이 너무 늦게 나와서 그런데 지금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딸이 너무 말을 많이 잘하니까 그때 진짜 많이 보고 싶어요.

## 인터뷰. 화성시 향남읍에 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소히바

질문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답 : 저는 소히바입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예요. 저는 37살이에요. 저는 한국에 2번째 왔어요. 지금 화성시 향남읍에 살아요.

질문 : 왜 한국에 오게 됬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답 : 돈 벌고 싶어서 왔어요. 맨 처음에 한국말 배웠어요. 그 다음에 비자 받았어요. 그다음에 한국에 왔어요.

질문 : 처음부터 화성에 살았는지 혹은 다른 곳에서 살다가 왔는지 궁금합니다.

답 : 먼저 평택에 왔어요. 일하러 왔어요. 그 다음에 비자 바꾸고 싶어서 발안에 왔어요.

질문 : 한국의 첫인상 어땠어요?

답 :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아요. 바다 있어요. 한국 사람 있어요. 한국 사람 제일 좋아요. 한국 사람들 인사도 잘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먼저 나 배 공장에 왔어요. 대우. 엘레베이터에서 일했어요.

질문 : 거기서는 어떤 일 했어요?

답 : 문 닫고 열고 직원들은 다 올라가고 배가.

배 만드는 공장에서. 엘레베이터에서 문 닫고 여는 일 했어요. 1년 2개월 정도 일했어요.

그런데 나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의사선생님은 바다 근처에 일 너무 많아서 ‘일자리 바꾸는게 좋겠어요’ 나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 화성 왔어요.

질문 : 화성에서는 어떤 일 하셨어요?

답 : 마스크 팩. 마스크 팩 만드는 공장 다녔어요. 12시간 일하고 쉬는 시간 없어요. 라인에서 엄청 빨라요. 계속 나오고. 손 팔목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질문 : 지금은 그럼 계속 일하고 계신가요?

답 : 지금은 너무 아파서. 쉬는 시간도 없이 일했어서. 다시 일자리 구하고 있어요.

질문 : 원래 출퇴근 시간은 어땠어요?

답 : 하루 12시간 일했고요. 아침 7시부터 7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쉬는 시간 없어요.

질문 : 그럼 현재 비자는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답 : 제가 가지고 있는비자는 E9비자예요. E9비자 좀 어려워요. E9비자 왔으면, 혼자 가족은 같이 올 수 없어요. 이제 나 내년에 E7으로 바꾸면 가족들 아이랑 같이 볼 수 있어요.

질문 : E9비자에서 E7비자로 바꿀 때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 : 월급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능력 봐요. E7비자도 다양하고 점수 있어서 그거 신경써야 되요. 저는 처음에는 5년 한국에 왔어요. 비자 끝났고 그 다음에 고향에 갔어요. 5년 지나고 다시 시험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나는 E9비자 말고 내년에 있다가 E7으로 바꾸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족 볼 수 있으니까요. E7으로 바꾸면 가족들이랑 같이 살 수 있으니까요. E7으로 바꾸면 가족들 볼수 있고 문제가 없어요. 오래 떨어져 지냈으니까요.

질문 : 한국어는 어렵지 않았나요?

답 : 아니오 어렵지 않아요. 저는요. 한국어는 재미있어요. 그런데 다 사람 똑같지는 않아요. 나는 왜냐하면 고향에서 선생님이였어요. 프랑스어요. 프랑스말 공부했어요. 그리고 영어말 공부했어요. 영어말 배웠어요. 그래서 나한테 한국말은 어렵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보다 나는 어렵지 않아요. 다른 친구들 E9비자인 친구들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다 사람 똑같지 않아요. 어떻게 단어를 배울 수 있는지 다 틀려요. 그때문에 좀 어려워요.

질문 : 그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어떤 일 하셨어요?

답 : 저는 선생님이였어요. 대학교에서. 프랑스말.

어떤 말을 배우면, 다른 말 배우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영어 알면 괜찮아. 프랑스 말 알면 괜찮아. 한국말 알면. 다 비슷해요. 방법을 알면 다 배울 수 있어요. 나 러시아말 알아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8개 말 알아요.

질문 : 혹시 한국에서 일하면서 힘들었던 점 있어요?

답 : 지금 E9비자인데 일할 공장 다시 찾아야되거든요. 그거 문제예요. 지금 어떤 E9비자 근로자 일자리 찾아서 갈려면 화성 있으면 화성으로 가야되고, 여기 다른 도시 못가요. 다른 도시 못가요. 그래서 E9비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때문에 어려워요. 다른 자리 못가는 거. 다른 지역을 못가는 거. 다른 지역 갈 수 있으면 지금 일자리 찾는 거 한국에서 안 어려워요. 부산에 있으면 부산에가요. 김해 있으면 김해가요. 거제도 있으면 거제도 가요. 그렇게 그 때문에 지역 안에서 옮겨야 하는 거. 그거 때문에 어려워요. 다 E9비자 받은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들이다 비슷한 거 같아요. 이거 문제라고 생각해요.

질문 : E9비자는 그냥 일반적으로 취업하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안되고,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진 업장으로만 이직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문자를 통해 업장의 정보를 얻고요.

답 : 요즘에는 문자도 많이 없어요. 지금 2달까지 기다렸는데 문자 많이 안오기도 하고요. 그 때문에 지금 고향 가고 있어요. 지금 비행기표도 비싸요. 한 달 나 월급도 못 벌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직장 연결 문자도 없고요. 그거 문제예요. 그거 회사에서 노동부에서 문자 잘 받으면, 빨리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 문자 받아요. 문자 받으면 빨리 전화해요. 전화 받으면 “아 죄송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 구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많아요. 그리고 이를 더 기다려요. 그러다 또 하나 문자 받아요. 그러다 안돼. 이거 안돼. 안돼. 안돼. 이거 힘들어요 사실. 진짜 힘들어요. 우리가 마음도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일자리 주는거 문자 받아서 다시 취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 힘들었을 때 내가 나를 다독였던 방법들이 있나요?

답 : 네 우리 무슬림 사람들은 알라한테 기도해요. 알라 같이 있어서, 우리가 괜찮아요. 다 문제가 없어요. 무슬림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힘이 많아요. 알라 때문에.

질문 : 일할 때는 기숙사에 살았어요? 아니면 다른 곳에 사셨나요?

답 : 음. 일할 때는 공장 기숙사에 살았어요. 지금은 일 찾아요. 일 찾을때는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질문 : 외국인 주민으로서 한국이 좀 이렇게 변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나요?

답 : 저는 아까 그 일자리에서 지역에 그거 다른 지역도 쉽게 갈 수 있는 거 그거 가면 제일 좋아요.

질문 : 하룻 동안 가장 많이 하는 일 있나요?

답 : 저는 책 읽는거 좋아해요. 책 읽으면 한국말도 많이 배우고 좋아요. 한국말을 빨리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 만나면 좋아요. 통화해요. 놀러가면 사진 찍어요.

질문 : 선생님께서 살고 계시는 곳이 교통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답 : 아니요. 좋아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발안시장 근처인데, 외국 사람들 많아요. 진짜 재밌어요.

질문 : 가족에 대하여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 : 어… 가족은 어려워요. 질문에.. 나는 애기 2명. 애기가 엄청 나이가 작아서. 한 명은 5살, 두번째 아들은 3살. 아이들 보고 싶어서 못가요. 못 불러요. 보고 싶은 데 못가고 못 만나요. 비자 때문에. 이거 문제가 없으면 E9비자로 가족을 볼 수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애기 가족 있으면 스트레스 안받아요. 가족 있으면 일 열심히 해요. 계속 돈 받아요. 가족이 앞에 있으면 가족 생각 안나요.

질문 : 지금 한국에 혼자 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한국에 올 때 걱정되지 않았어요?

답 : 아니오. 언니 있어서, 언니는 나보다 기억 잘해요. 언니도 5명 애기 있어서 아이들까지 7명 아이들 보고 있어요. (저대신) 걱정 안해요. 그거만 스트레스에요. 나 회사 종료하고 밤에 매일매일 울어요. 진짜요. 왜냐하면 결혼식 있다가 아이들 만났어요. 그래서 시간 엄청 어려워요. 3명 애기 죽었어요. 엄마 아빠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12살에서 엄마 돌아가셨어요. 19살인데 아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거 문제에요.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가족들.

질문 : 가족들이랑 보냈던 즐거웠던 기억이 있을까요?

답 :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면 좋아요. 그거는 제일 좋아요. 그거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가족이 있으면 다른 생각 없어요. 가족 있으면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어디 아파도 그거 잊어버려요. 꿈에 많이 와요.

질문 : 아이들이랑 자주 통화 하시나요?

답 : 네. 매일매일 저녁에 시간 있을 때, 점심시간에. 아침에 말 안해요. 왜냐하면 우리 고향이랑 시간이 틀려요. 4시간. 그래서 8시 있으면, 거기는 새벽 4시에요. 가족들이 거의 다 자요. 그래서 아침만 말고 점심하고, 저녁하고 전화해요. 시간 얼마나 시간 있으면 그거는 생각하고 통화해요. 얘기는 그거 통화해요.

질문 : 아이가 주로 뭐라고 해요?

답 : 아이가 두 명 주로 계속 울어요. 먼저 질문 있어요. “엄마 언제와요?” “엄마는 보고 싶어요” “언제와요?” 그거만 질문해요. 계속 그거 물어봐요. 아무거나 다른 거 안물어봐요. 나 그거는 바꿔 줘요. 그거 Voice talk? you know? 그걸로 “엄마 그거 (뭐) 샀어요.” “나 그거 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해요. 그럴 때 바꿔줘요. 그래서 나 바다에서 전화 받았어요. 손으로 아무거나 없어서 아이들한테 바다 보여줄께. 보여주고 싶어요. 보여줘요. 그래서 전화 받았어요.

질문: 가족들이나 아이들이 한국에 짧게라도 와본 적이 있나요?

답 : 아이들은 아직 한번도 안 왔어요. 이제 나 E9비자 있어요. 손님비자로 3개월도 괜찮아요. 공장사장님 더 좋으면 나 불러요. 3개월마다 한국에 오면 놀러가요. 맛있는 거 사요. 사진 찍어요. 그거는 좋아요. 그다음에 E7 비자로 바꾸면 아이들이랑 같이 살 수 있어요. 한국에서 어린이집 가고 한국말 배우고 영어배우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계속 같이 놀러가요. 그거는 나는 드림 꿈이에요. 1등 꿈. 다른 생각은 없어요.

나도 엄마 아빠 없어서 마음 아파요. 그래서 얘기도 엄마는 엄청 멀어요. 한국하고 우즈베키스탄하고 얘기도 마음 아파요. 그래서 얘기는 그렇게 생각 안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화해. 얘기는 생각. 이야기 없어요. 엄마 우리 보고 있어요. 카메라도 괜찮아요. 앞에 말고 멀으면 앞에 말고 멀으면 괜찮아요 생각이.

## **인터뷰. 화성시 팔탄면에 사는 스리랑카 출신 파티부치카와 가족**

질문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답 : 스리랑카에서 왔어요. 2016년 12월 31일, 2017년 1월 1일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7년 됐어요. 지금은 경기도 화성 팔탄면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질문 :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나요?

답 : 남편이 먼저 한국에 오게 되었고 동반비자로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질문 : 한국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답 : 처음에는 한국이란 나라를 상상해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본 적이 없어서요. 처음에는 너무 신기해서 다른 세상 같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조금 익숙해지고 나니 스리랑카처럼 편하다고 느꼈어요.

질문 : 어떻게 지금 누구와 살고 있나요?

답 : 지금 남편과 아이 두 명과 함께 살고 있어요. 첫째 아이는 2017년에 태어났고, 둘째는 2022년에 태어났어요. 지금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스리랑카에서 2008년에 결혼했는데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어요. 스리랑카에서 많은 방법을 찾아보았고 치료도 받고 해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남편과 같이 방법을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공부랑 언어보다도 아이를 갖는 방법을 찾아보았어요. 그러다 시험관의 방법을 통해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질문 :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엄마가 되었던 경험은 어땠었는지 궁금합니다.

답 : 처음에는 시험관 아이로 아이를 가졌어요. 그동안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요. 첫 아이니까 아무런 경험이 없고 아무런 정보도 없으니까. 그리고 부모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아무도 없으니까 엄청 외로웠어요.

첫째 아이니까,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위해서 마음을 먹고,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첫째 아이니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이를 가졌다라는 행복한 마음으로 버텼어요.

지금은 적응하고 나니 스리랑카에서 온 친구들에게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때 그렇게 혼자서 견뎠던 마음이 나를 경험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 거주하는 스리랑카 여성들이랑 통화하고 있는데요. 한 명 연결되면 또 다른 분과 연결되고 그런 식으로 서로 도와주고 있어요.

질문 : 한국에서 다른 스리랑카 여성들과도 교류가 있으신가요?

답 : 처음에는 한국에 사는 스리랑카 여성분들을 알게 되었어요.

다른 나라보다는 스리랑카 여성분들이랑 많이 알게 되었어요. 언어가 통하니 그랬고요.

요새 스리랑카 아주 여성들이 많이 오니까 요새 E7비자 받고 가족비자로 들어오는 여성들도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도 부모나 형제와 떨어져 지내니까 도움이 필요한 곳들이 종종 있어요.

바쁘게 살아가니까 먼저 연락을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먼저 연락하면, 형제 문제나 부모님의 문제나 그런것들로 먼저 연락을 하면 다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웬만하면 다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보통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질 못하니, 전화만 자주 하니까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도와줬다고 하니까 많이 보람 되더라고요. 그때 아이를 낳았던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그때는 잠깐 힘들었지만 이렇게 도움을 돌려주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행복한것 같아요.

남편 덕분에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오히려 남편한테 고맙고 행복해요.

질문 : 타지에서 아이를 낳았던게 힘들거나 무섭지 않았어요?

답 : 처음에는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에 왔는데 남편이랑 같이 가니까 남편에게 힘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남편이 그래도 옆에 계속 있어주고 하니까 견딜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스리랑카에서 왔잖아요.

스리랑카 병원 시설보다는 한국이 조금 더 좋으니까 여기 온 아주 여성들이 E7비자의 동반비자이잖아요.

그 친구들은 아이들을 타국에서 갖는 걸 무서워했어요. 나도 한국말 하나도 모르고 갔는데 괜찮았어.

지금 아이들 둘 키우고 있는데 괜찮아. 친구들에게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한국의 의료시설이 좋게 있다고 말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는 점도 말해주고

얼굴로 표현만 해도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아준다고 알아서 다해준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서 용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갖기 무서워 하는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다른 친구들도 무사히 아이들도 낳고 행복하게 지낼수 있었어요. 만약 5명의 친구들에게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고 용기를 주면 그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에게 또 용기를 주고 하면서 네트워크가 생기고 서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질문 : 하루의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답 :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남편이 일하러 나가고 출근하고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아이들은 9시쯤 나가야 해요. 처음에는 큰 애가 전기 자전거 타고 학교 가고 막내는 집까지 어린이집 차량이 와요. 막내도 대려다주고요. 밖에서 할 일이 있으면 밖에서 일을 좀 보고 안으로 들어오고 집안 정리하고 빨래하고 음식을 만들고 다른 일이 있으면 다른 집안 일을 하고 4시되면 아이들이 집으로 와요.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을 씻기고 밥을 먹이고 한 6시되면 큰아이 공부도 가르쳐주고 남편이 오면 씻고 밥먹고 그러면 밤이에요. 밤에 잠자고 그럼 하루가 끝나요.

질문 : 한국에서 스리랑카 재료들을 구하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음식을 요리 하시나요?

답 : 우리는 주로 스리랑카 음식을 먹는데요. 옛날에는 스리랑카 음식을 구하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코로나 시기가 끝난 다음에 지금은 스리랑카 음식들이나 재료들이 조금 구하기 수월한데요. 어떤 것들은 많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 식으로 하고요. 네 식구니까 나가기보단 집에서 자주 먹어요.

아이들은 다 야채와 고기 넣고 만들어요. 아이들은 맵게 못먹고 짜게 못먹으니까 야채 넣고 고기 넣고 아이들이 오면 밥을 먹여줘요. 아이들에게 혼자 밥을 먹으라고 하면 편식하거나 잘 안먹으니까요. 아이들도 아직 어리니까 먹여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은 좀 크면 자유롭게 하는 것 같은데 스리랑카에서는 아이들은 조금 더 크면 떠나고 독립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잖아요. 그러다보니 스리랑카 엄마들은 아이들이 어렸을때 더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과 많이 시간을 보내려고해요. 좀 크면 아이들이 떠나니까 스리랑카 엄마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 더 많이 보살피고 더 많이 아낄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질문 : 아이들 키우면서 어려운 점이 있나요?

답 : 지금까지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남편이 한국말을 잘하고 옆에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고 하니까 걱정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좀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상상이 안되기는 해요. 아이들이 비자때문에 큰 애는 이제 곧 학교 들어가니까 제가 F3동반비자로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한거 같아요. 한국 말을 잘 모르니까 못하니까 아이들은 학교 가니까 아이들은 비자를 받을건데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질문 :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나요?

답 : 남자만 세 명이니까 이것저것 다 하는 것 같아요. (웃음)

질문 :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나요?

답 : 한국 여성들은 자신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는데 아직까지 아이들이 어리다보니까 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 같아요.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잠깐잠깐 하고 운동하고 싶으면 조금조금 하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어리니까 구체적으로 무언가 나를 위해서 하는 시간은 많이 없는 거 같아요. 여기 처음 올 때는 날씬했는데 메이크업이나 화장도 못하고 그냥 살아요.

질문 : 내가 막 지금 해보고 싶은 것들 있으신가요?

답 : 한국 여성들은 자유롭게 무언가 하니까 저도 기회가 되면 한국말 좀 더 배워서 자유롭게 다 해보고 싶어요. 시장보는 거나 밖에 나가는 거나 한국말을 잘 못하고 좀 집이 외지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남편의 도움으로 하는데 혼자 차를 운전해서 아이들과 밖에 나가는 거나 그런것들이요.

한국 여성들은 좀 더 자유로우니까 자유로운 나라잖아요.

남편도 더 해보라고 하는데 아직 못하는게 많으니까 조금 후회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남편도 도움 요청하면 언제든지 아이들도 봐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을 갖는 것이 목표였으니까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데 기회되면 앞으로는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요.

질문 : 아이들 이중언어 교육에 대하여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답 : 아이들은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말은 무조건 자유롭게 하는 편이고요.

아이들은 엄마랑 이야기 할 때 무조건 스리랑카 말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큰 아이는 아빠랑은 한국말로 하고 엄마랑은 스리랑카말로 대화해요. 그래서 두개 언어를 같이 배우고 있어요. 정식적으로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말을 많이 배우는 데 막내는 이제 말하기 시작했는데 한국말도 하지만 스리랑카 말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시간 되면 엄마랑은 스리랑카 말하고 아빠랑은 한국말로 이야기 해야한다고 알아서 걱정은 많이 없어요. 큰 애는 학교에서도 한국어 배우니까 한국어 선택할 거고 큰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질문 : 가정 집안에서 문화가 섞일 것 같은데, 다르게 마주했던 경험들이 있나요?

답 : 한국에서는 집에서도 밖에서도 좋은 기억만 있는거 같아요. 병원 갔다가 첫째 아이도 갖게 되었고요.

둘째아이는 코로나 걸린적이 있었어요. 둘째는 혼자 자기가 혼자 코로나 겪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다른 친구들한테도 나도 병원에가서 한국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병원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다. 잘해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그러는데 주변에서도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너무 잘 대해주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고맙고요. 사랑해주니까 좋고 옆집 아주머니도 아이들 예뻐해주고 이야기도 주고 받고 하니까 행복한 거 같아요. 한국에서는 좋은 일이 더 많았던 거 같아요.

질문 : 가사노동이 빨래 청소 요리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할 일이 많은 거 같아요. 깨끗이 치우는 것도 어렵고, 빨래나 청소 집안일을 할 때 자신의 노하우가 있나요?

답 : 여기서 집에서 일할 때는 스트레스 받는게 좀 싫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좀 늦어지니까요.

항상 잠잘 때 내일 어떻게 움직여야할지 생각하는 거 같아요. 하루는 빨래를 하고

빨래하는 날에는 음식을 안 만들고 음식하는 날에는 집안 청소를 안하고 집안 청소를 하면 오후에는 빨래하고 그 다음날에는 아이들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해요. 스리랑카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집안일을 해요. 우리는 땅이 좀 더 크고 땅가운데에 있는 집을 짓는 편이예요. 겨울이 없고 그러니까 풀도 금방자라고 집 밖도 쓸어야 하고 집 안도 쓸어야 하고 마당에 야자도 관리해야 하고 그래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집안일 하는 것은 스트레스는 많이 안받고 집안일 하면서 하루하루 나누면서 그렇게 까지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질문 : 집에서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시간들이 있나요?

답 : 스리랑카에서는 저는 춤추는게 취미였어요. 춤을 많이 배워가지고 춤을 추고 싶기도 하고

웃수선하는 거 옷 만드는 거 좋아해요. 꽃 심는 것 꽂 보는 것 좋아하고요. 밭에 꽂키우고 하는 거 하고 싶어요.

질문 : 한국에 오기 전에 어떤 일 하셨나요?

답 : 스리랑카에서 처음에는 2004년에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때 스리랑카에서 아이들 춤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2004년 쓰나미 온 이후에는 라디오에서 잠깐 잠깐 아나운서로 방송했었어요. 2008년에 결혼한 다음에는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있어요.

질문 : 한국이 좀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점 있나요?

답 : 동반비자로 와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르바이트나 일을 못하는 게 좀 어려운거 같아요.

E74비자의 가족동반비자로 지금 머물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일도 못하고 그러니 가정이 너무 어려운거 같아요. 맞벌이를 하거나 여럿이 벌어도 힘든데 진짜 다 남편혼자해야 하니까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거 같아요. 지금은 아이가 둘이지만, 만약 하나가 더 생기면 더 힘들 거 같아요. 저희는 여기서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말 때문에 언어 때문에 피부 색깔 때문에 어려워하는 아동들도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게 좀 없어지면 좋겠고요. 될 수 있다면 이런 상황을 보고 동반으로 온 가족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자를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바래요.

질문 : 스리랑카에 고향은 어디인가요?

한반도다라는 도시예요. 스리랑카 나라 끝에 있는 도시에요. 좀 더운 지방이에요.

질문 :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경험들이 있나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살았어요. 어머니는 외국에 일하러 나가셨고요. 저는 비교적 자유롭게 지냈어요. 엄마가 외국에 계시니까 할머니랑 지내니까 학교에서 부모님 회의할 때 다른아이들은 엄마아빠가 오는 데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가시니까 그런것들이 좀 생각나요.

그래도 부족한 것 없이 엄마가 멀리서도 돌봐주니까 부족한 것 없이 행복했던 거 같아요.

질문 : 힘들었을 때 나를 힘나게 하는 말들이 있나요?

답 : 뭐 힘들었던 상황은 없고 한국말 못하는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남편이 출장 많이 나가면 아이들 병원 가야 하는데 가는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어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몇 번 시도 해봤는데 잘 안되기도 하고요.

그래도 잘 못한게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좀 더 노력하고 한국어 배우고 싶기도 합니다.

## **인터뷰. 화성시 향남읍에 살고 있는 키르기스스탄 출신 자리나**

질문 :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 : 저는 나이는 38세이고, 지난 주말이 생일이였어요. 화성 향남에 살고 있어요. 러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 왔습니다.

질문 : 원래 화성에서 살았는지 궁금합니다.

답 : 저는 5년전에 화성에 왔어요. 처음 방문한 건 2016년도에 처음이였어요. 처음에는 수원에서 살았었는데, 비자 때문에 출국해야만 했어요. 그 이후에 화성으로 이사왔고 5년 정도 되었어요.

질문 : 한국에서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요.

답 : 저의 남편이 고려인이예요. 남편의 가족 모두가 고려인이예요. 고모나 삼촌이 한국에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에 살고 있었고, 가족들이 남편에게 한국에 방문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렇게 남편과 제가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남편은 좀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길 원했고, 현재 남편은 10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질문 : 한국의 첫인상은 어떠했나요?

답 :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1월이였는데, 아주 추웠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요. 날씨는 내가 익숙한 고향과 매우 달랐어요. 우리 동네는 겨울은 매우 건조해요. 그런데 여기는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고. 한국은 아주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많은 아름다운 가게들, 샵, 불빛들, 아주 다른 언어들이 저에게는 재밌었어요. 내가 배웠던 단어들은 영어나 스페인어나 그런 것들이였는데 한국어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들이였어요. 요즘에는 한국어를 많이 배우고 있고 한국어를 좋아합니다.

질문 : 화성의 첫인상은 어떠했나요?

답 : 5년전에 처음 화성에 왔을 때, 저는 화성에서 러시아 사람들을 보지 못했어요.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구요. 있어도 한 두명 정도였어요. 잘 이야기 하지 않아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지금은 집 앞에 두개의 놀이터와 공원이 있는데 러시아어를 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 아이들은 이곳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화성이 다른 곳보다 좀 더 좋은 이유는 깨끗하고 자연이 같이 있고, 아름답기도 해요. 모든 날씨가 아주 아름다운 거 같아요. 가게나 식당 등 삶에 필요한 것들이 주변에 다 있어서 생활하기 편리한 것 같아요.

질문 : 혼자 살고 있는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 저는 남편과 3명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질문 : 아르바이트 같은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 :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요. 화성은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지금 3명의 아이들이 어려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고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 교육은 아주 중요한거 같아요. 지금 파트타임 잡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당한 시간이 맞는 게 있다면 하고 싶기도 해요.

질문 : 한국에 오기 전에 했던 일들이 있을까요?

답 : 저는 예전에 키르기스스탄에서 중학교에서 댄스를 가르쳤고요. 셀러이기도 했고 옷감을 판매하기도 하기도 했어요.

질문 : 가사노동은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생각보다 일이 많은거 같아요. 가사노동할 때 엄마로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답 : 저는 엄마이기에 가족들을 돌보는 일이 필요했어요. 가족을 돌보고 가사노동을 하는 게 물론 할 일이 많고 어렵지만, 제가 엄마이기에 해야하는 일이였어요. 저는 3명의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모든 아이들이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제 경우만 해도 아이들이 모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끔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하죠. 저에게는 그게 가장 어려운거 같아요. 그리고 셋 다 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성이고 그러다보니 아들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울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저에게 어려운 부분이예요.

질문 : 한국에 살면서 바라는 점이 있나요?

답 : 저는 비자를 기다리고 있고, 비자가 업그레이드 되면 현재 겪는 어려움이 사라질 것 같아요. 우리는 가끔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일하는게 필요해요. 우리 아들들이 자라고 하면 저는 아이들의 미래나 교육에 대하여 더 생각하게 될 것 이고, 그게 바로 제가 일을 필요로 하는 이유예요. 나는 한국에서 사는 것을 그리고 있고, 이 장소를 좋아해요. 고향에서 사는 것보다 미래에 한국에서 사는 것을 그리고 있어요. 공부도 하고 교육도 받고 저희 가족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목표는 우선 언어를 배우고 공부를 시작하고 F2비자를 받기 위해서 언어 공부를 해야하고요.

질문 : 혹시 한국에서 차별받았던 점도 있나요?

답 : 없어요. 전혀요. 나에게는 절대 없었던 거 같아요. 우리 남편 가족들에게는 없었어요. 다 괜찮아요.

질문 : 한국이 뭔가 이렇게 변했으면 하는 지점이 있을까요?

답 : 한국이 내가 살았던 고향이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과 많은 아이들이 밖에서 놀지 않는다는 것 이에요. 제가 살았던 고향은 외부에서 놀고 활동하는게 아주 자연스럽고 익숙한 일이예요. 땅을 만지고 자연을 느끼고 하는 것들이 아주 당연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야외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놀고 자연과 놀고 했어요.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숙제하고 대부분 실내에서 생활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한국 부모님들은 아이들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에게 무언가 놀이터에서 뛰어 놀게 하고 싶고, 물에서 뛰어 놀게 하고 싶기도 하고, 자연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하게 하고 싶기도 해요. 가끔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하고 숙제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런 아이들의 노는 활동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끔 우리는 아무것도 안하는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느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어린이들은 굉장히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 당시 경험하며 보낼 수 있어야 해요. 매일 공부만 하고 매일 해야 할 일들만 하면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도 어렵고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경험들과 자유시간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의 경험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은 한번뿐이잖아요. 우리는 행복해질 필요가 있어요.

질문 : 한국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답 : 언어요.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예요. 저와 아이들에게 가장 어려운건 언어예요. 제가 자란 곳에서는 영어와 러시아어, 가끔 스페인어를 쓰고 그랬어요. 한국어는 저에게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다른 언어라서 예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한국어를 잘한다면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우리 첫째 아들은 조금 더 한국어를 잘하고 잘 이해해요. 그는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어로 말할 줄 알고요. 문법이나 그런것은 약하지만 잘 이해하고 잘 말해요.

저의 경우는 저는 한국사람이나 한국인 친구도 없고 그러다보니 한국어를 쓸 일이 좀 적어요. 러시아 친구만 있어서 잘 늘지 않는 것 같아요.

질문 : 러시아 친구들은 한국인 친구들이 많이 없나요?

답 : 네 거의 비슷해요. 아무래도 언어의 차이가 있다보니까, 러시아 친구들은 러시아 친구들이랑 놀아요. 한국인 친구들은 거의 없고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사를 만나면 성향이나 이해가 다른 지점도 있어요.

질문 : 아이들이 한국 친구들이 있나요?

답 : 있는 것 같아요. 고려인이나 한국 사람들에게 다른 문화를 이야기하고, 나라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무엇을 먹는지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날씨나 기타 등 다른 문화를 이야기 해주기도 해요. 첫째 아들은 중학생인데 부모님이 모두 한국인 친구들보다는 문화가 섞인 친구들이랑 많이 친한 것 같아요. 한국인인데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요. 예를들어, 베트남-코리안 한국인, 고려인-태국인 사이에서 자란 아이들이요. 한국에서 자라고 태어난 퓨어 코리안 아이들과의 관계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치만, 한국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들은 재밌고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질문 :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 : 집을 청소하고,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고, 지금은 휴가시즌이라 이번주에는 가족들과 휴가를 갈려고 해요.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들이랑 보내요. 요리하고 세탁하고 청소하고 모든 여성들이 하는 일을 해요. 저는 아이들이 3명이기 때문에, 저에게 많이 도움을 요청해요. “엄마, 배고파요” “엄마, 내 양말 어딨어요?” “엄마, 숙제가 너무 많아요” 도와달라고 요청해요. 가끔은 어떤 것 때문에 싸우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필요한 시기예요.

질문 : 화성에서 살면서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하시나요?

답 : 우리는 차가 있어서 우리는 차나 택시이 있어서 괜찮아요. 화성에는 텔레그램 통해서 러시아 택시를 부를 수 있어요. 그렇게 이동하기도 해요.

질문 : 선생님의 고향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답 : 저는 비슈케크 키르기스스탄에 살았었어요. 제가 처음 태어났을 때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 땅이였어요. USSR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 즉 소련연합이였지요. 그때는 러시아어를 썼고 도시이름도 러시아어였어요. 비슈케크가 아니라 우리는 ‘푸른제’라고 불렀어요. 세계2차대전 때 어떤 혁명가 군인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지었는데 ‘푸른제’라고 불러요. USSR 소련연합이 붕괴되고 난 후 우리는 푸른제라는 이름을 안쓰고 비슈케크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도시 이름을 바꿨어요. 옛날에는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이 모두 소련 연합이였고 하나의 나라였어요. 같이 다 러시아어를 썼어요. 그때는 도시의 이름이나 도로의 이름이 러시아어였어요. 그런데 소련이 붕괴 되고 나서 몇몇 도시들이나 거리 이름들은 바뀌게 되었어요. 저는 푸른제에서 태어났고 비슈케크 키르기스스탄에서 자랐어요. 한국 말고는 다른 곳에서 살아본적이 없는데 푸른제에서 비슈케크로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예요.

질문 : 고향에서 기억하는 노래들이 있으세요?

답 : 모든 노래들이 기억나요. 엄마 할머니에게 배운 노래들 타타르 노래, 러시아 노래...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내가 언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도 좋은거 같아요. 러시아 팝뮤직 같은 것도 듣고, 삼총사 OST 같은 것도 좋아해요. 내가 어렸을 때, USSR뮤직 들었어요. 영화음악도 듣고요.

질문 : 고향에서 기억나는 놀이들이 있나요?

답 : 고향인 키르기스스탄은 되게 많은 민족이 살고 있어요. 러시아에서도 오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와도 연결이 크죠. 우즈베키스탄-고려인,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안 사람들 엄청 많은 인종들이 함께 모여 살아요. 왜냐하면 세계2차대전이후에 모든 국가와 민족들이 섞였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놀이이나 문화같은 것이 하나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 보단 여러 민족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예요. 타타르, 키르기스스탄, 러시아의 문화나 서로가 엄청 연결되어있고 함께 공유하고 있는 문화의 형태이지요.

질문 :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 안에서 다른 국적의 사람들을 가족으로 맞이할 때 행운이라고 맞이하는 생각이 참 멋지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사람들이 외국인 이웃들과 함께 교류하며 다양한 인류에 대하여 배우고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한국에 오셨을 때 고향과 달라서 재밌었던 점도 있으실까요?

답 : 과일과 채소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서난 과일이나 채소는 굉장히 달고 향이 강해요. 집에서 만약 오이를 자르면, 옆방이나 집 밖까지 향기가 퍼져요. 저희 엄마가 집에서 과일을 집 안에서 자르면 밖에서 이 냄새가 풍겨요. 그런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런게 좀 그리운 것 같아요. 한국의 과일도 좋지만, 땅의 요소가 다르고, 바람이 다르고, 좀 다르지요. 그치만 한국도 그만큼 좋은게 있는거 같아요.

## 인터뷰 : 평택 청북읍에서 살고 있는 스리랑카 출신 디누완크와 가족

질문 : 자기소개부탁드립니다.

답변 : 제 이름은 디누완크입니다. 제가 33살 한국에 왔다가 12년쯤 됐어요. 평택 청북에 살고 있어요.

질문 : 어떻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나요?

답변 : 한국에는 2011년에 EPS토픽 시험보고 한국에 왔어요.

질문 :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답변 :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친구들도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영화도 봤어요. 영화보고 나니 한국이 좋아 보여서 오게 되었어요. 돈 많이 벌고 우리나라보다 좋은 지점들도 보여서 시험보고 한국에 왔어요.

질문 : 평택 청북에서 계속 사셨나요?

답변 : 원래는 평택 서정리 고덕에 회사가 있었는데 12년 다녔어요. 평택 서정리 고덕에서 청북으로 회사가 이사와서 같이 다니고 있어요.

질문 :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나요?

답변 :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말 잘 못해서 이거 어떻게 살지 이거 안되는 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 할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했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다음에 사람도 뭐하는지 생각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가면 ‘괜찮아요’ 그렇게 답했어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질문 : 지금 있는 곳은 어떤가요?

답변 : 지금 있는 곳은 좋아요. 원래는 가족 같이 올 것들을 꿈꾸지 못했는데, 지금 가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 있으면 친구들도 같이 있어요. 말하는 것도 조금 알게 됐으니까 회사의 생활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편하게 살고 있어요.

질문 : 집에 있을 때 하는 일이 있나요?

답변 : 원래는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일어나고 일해요. 일했다가 친구들 가끔보고 직접 밥 먹고 다시 일해요. 지금은 가족 같이 있을 때는 생각 많이 해야되요. 그리고 아이 있으니까 아이가 아플 때는 생각 많이 해야되요. 어떻게 학교 갈 때도 있고, 모르는 것 있으면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그래도 혼자 있을 때보다 가족들 같이 있으면 좋아요. 돈은 들어갈 때 들어가지만, 같이 있으면 좋아요. 힘들지만, 같이 있으면 좋아요.

질문 : 어디에 사시나요?

답 : 지금은 따로 원룸에 살고 그냥 집에 살아요.

질문 :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지?

답 : 지금 자동차 제품 MCT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자동차 제품 기계 만드는 부품 만들어요. 우리는 하이드릭 펌프 만들어요. 중국에 보내는 거 포크레인 제품 만들어요. 알루미늄 아니고 철. 철로 만드는 거예요. 제품.

질문 : 처음에는 일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답 :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거 기계 일이 없으니까 한번도 못봤어요. 그 다음에 라인 나오면 불량도 많이 나오. 불량도 많이 나오니까.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스리랑카 사람들도 없었어요. 나하고 친구 1명 왔어요. 이거 말해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5시30분에 퇴근하고 집에갔다가 다시 와서 기계 혼자 공부했어요. 아침에 말했던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적어서 5시 30분에 일 끝나고 10시30분까지 10시까지 혼자 공부했어요. 그래서 빨리 공부했어요.

질문 : 처음에 스리랑카 친구 한 분이랑 오셨나요? 같이 일하셨는지 궁금해요. 회사에 다른 동료들은 없었나요?

답 : 내가 오기전에 회사에 필리핀 친구 1명하고 중국사람 1명 있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스리랑카 사람 내가 오기전에 없어요. 내가 일 잘 하니까 지금 중국사람 필리핀 사람 없고 스리랑카 사람만 있어요. 우리 회사에 나합쳐서 13명 있어요. 회사에 같이 살아요.

질문 : 비자는 어떤 걸로 들어오셨나요?

답 : 우리는 외국사람들이 올 때는 다 E9이예요. 지금은 E7을 받고 있어요. E7은 5년 지나면 딸 수 있어요. 지금은 F2나 F5로 바꾸고 싶어요.

질문 : 가족들이 한국에 올 때 걱정하지 않았는지?

답 : 맞아요. 엄마는 일주일에 3번 4번 전화해요. 나도 그렇고 우리 아이보고 싶을 때 전화해요. 있을 때마다 아이 보고 싶어요. 아이 보고 싶을 때 운다고 말해요. 엄마는 기억이 나요. 우리 오기 전에도 같이 있어요. 12년 정도 엄마랑 같이 안 살아요. 우리가 한국에 있으니까.

질문 : 한국에 살면서 고민이 있나요?

답 : 지금 내 생각에는 우리 지금 12년 지금 좀 일 했는데 또 취직하고 싶어요. 다른 곳으로 이직하고 싶어요. 지금 12년 하다가 또 공부하다가 또 돈 많이 벌어야 해서 좋은 일자리고 이직 하고 싶어요.

질문 : 한국에 살면서 어려웠던 점들이 있나요?

답 : 한국에 살 때는 아직도 지금 힘들어요. 아직 공부 덜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는 스리랑카 친구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어요. 원래는 스리랑카에 돌아갈 생각하고 있었어요. 2017년 친구 만났어요. 이 때 마다 지금 제일 좋은 친구예요. 공부는 2020년에 공부 시작했어요. 그전에 회사에서 일끝나고 집에가고 그렇게 있을 때 공부는 생각 안했어요.

질문 : 한국에 살면서 힘들지만 만족스러웠던 점들이 있나요?

답 : 한국에는 우리나라 처럼 예쁘기 때문에 가족들도 우리나라에서 처럼 같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같이 있어서 좋아서 일하고 있어요.

질문 : 공장의 일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점들이 있나요?

답 : 우리 일할 때 한국에서 세금 받아요. 아 우리한테 혹은 우리 아이들한테 도와주면 좋아요. 아 그리고 우리 외국 사람인데 피부색깔 다르잖아요. 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국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아. 우리 외국사람이니까 말도 잘 못하니까. 우리한테 많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어요.

질문 : 한국으로 이동했던 경험은 어떻게 될까요?

답 : 고향은 스리랑카 마타다입니다. 제가 마타다에서 콜롬보로 왔을 때는 5시간 걸렸어요. 차타고 왔어요. 5시간 갔다가 콜롬보에서 비행기 타고 8시간 걸렸어요. 한국에 3일동안 다시 공부했고, 우리 회사에 사장님하고 사모님 우리 데려갔어요.

질문 : 한국 생활 했을 때 어려웠던 점들이 있나요?

답 : 우리는 스리랑카 사람들은 손으로 먹어요. 한국사람들은 젓가락질 하잖아요. 이거 처음에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잡아요. 그다음에 많이 먹었다가 지금은 알아요. 그 다음에 제가 고기 안먹으니까 아직도 불편해요. 저기 식당에 거의 많이 고기 있어요. 그거 불편해요. 회식했을 때 사람들은 술마시고 저는 술도 안마시니까 불편해해요. 제가 회식할 때는 사람들이 피자 시켜줘요. 제가 피자만 먹으니까 제가 피자만 먹어요. 다른 친구들은 삼겹살 먹어요. 저만 피자먹어요. 다른 사람들은 고기 먹으니까 삼겹살 이런거 먹어요.

질문 : 하루동안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답 : 집에서는 아내랑 아이랑 많이 놀아요. 그래서 공부는 많이 못하고 안하고. 불편해요. 아이하고 와이프랑 같이 보면서 노래도 불러요. 스리랑카에서 아내랑은 2017년도에 결혼했어요. 아내는 2년정도 되었어요. 아내는 F-3-1비자예요. 다음에는 다른 비자로 바꾸고 싶어요.

질문 : 동반비자 어려운 점 혹은 비자의 어려운 점이 있나요?

답 : 저희 아내가 F3 비자 받아서 오기 전에는 E9비자에서 E7비자로 업그레이드 해야되요. E9에서 E7으로 바꿀때 이거 시험도 해야되요. 월급은 1년에 월급을 맞춰야해요. 그래서 계속 회사에 4년 지나도 있어야 하고 직장 바꿀 수 없어요. E7비자 받기까지 과정도 어려워요. 봉사활동도 200시간 해야하고 점수가 필요해요. 와이프는 F-3-1비자로 왔는데 비자 바꾸고 왔는데, 와이프는 F3비자 받았어요. 지금은 생활비도 힘들어요. 전기, 주택 월세, 아이 옷이나 생활비 그런거 힘들어요.

질문 : 동반비자 한국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해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 : 어차피 한국에 오면 동반비자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5년정도 잡아야해요. 5년 살고 여러가지 맞춰야해요. 한국어도 따야하고, 자산 아니면 수익을 3000만원 같은 금액을 맞춰야 하고, 또… 일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해요. 쉽지 않아요. 어차피 5년 이상 한국에 살아야 해요. 작은 시간 아니고 엄청 긴 시간이예요. 그건 기본이예요. 엄청 오랫동안 계획해서 준비해야 해요.

질문 : 근처에 스리랑카 음식점이 있나요? 혹은 친구들과 만나는 곳이 있나요?

답 : 시장에 시내에 있을 때는 스리랑카 음식은 집에서 만들어 먹으니까 한국식당에서 친구들 만나요. 스리랑카 음식은 매일 집에서 먹으니까. 한국식당에서는 비빔밥 그런거 먹어요.

질문 : 한국에 살면서 행복했던 기억이 있나요?

답 : 한국 살 때는 친구들이랑 와이프랑 같이 만나니까 행복해요. 그리고 제일 행복했을 때는 와이프 공항에서 왔을때요. 그때 제일 행복했어요. 제가 1년마다 스리랑카 갔다가 왔다가 했어요. 갈 때마다 사장님도 E7으로 바꿔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E7 비자로 바꿨고, 그리고 와이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신청했어요. 저는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다 와이프 오게되니까 너무 좋았어요.

질문 : 아내 아이 같이 살 때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이 있나요?

답 : 아이랑 같이 노는 것들 노래 불러주기도 하고. 가끔 월급받으면 가족들이랑 밖에 나가서 밥먹기도 해요. 가끔 가지고 싶은 것들 있으면 사주기도 해요. 도와주는 것은 요리 두번 세번 해주기도 했어요.

질문 : 고향 마타다는 어떤 곳이예요?

답 : 마타다는 바다 있어요. 집에서 바다 가까워요. 바다도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행하러 와요. 스리랑카 남도에 있어요. 바다도 있어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이와요. 왜냐하면 바다가 너무 예쁜거예요. 낚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가고요. 우리 차 만드는 스리랑카의 실론티 여기서 다 키워요.

질문 : 고향의 기억이 있나요?

답 : 우리 기억에는 한국말 공부할 때는 마타다에서 우리 집까지 걸어서 왔어요. 이거 좀 기억이 나오. 7km정도를 걸어다녔어요. 한 1시간 30분 넘게요.

질문 : 아이를 키우고 계신데 아이가 혹시 한국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이 있나요?

답 : 아이들 친구들이 우리 아이랑 같이 갑자기 안논다고 말한적 있어요. 아이는 놀고 싶은데 안나오기도 하고. 여기에 얘기했어요.

질문 : 집에서 얻어는 어떻게 쓰는지 궁금합니다.

답 : 집에 있을 때는 아이 우리한테 얘기 했어요. 집에 있을 때는 싱할라어 할꺼라고 얘기했어요. 집에서는 엄마

아빠랑은 스리랑카어 쓰고, 선생님이라 밖에서 친구들 만날 때는 한국말 할꺼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일하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가 아이에게 싱할라어, 한국어, 영어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질문 : 한국에 살면서 걱정 되는 것이 있나요?

답 : 걱정하는 것은 갑자기 비자 신청 안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할 지 고민되긴 해요. 지금 E7있는데, 지금 우리 비자 신청 안되면 뭐 하는지 그다음에 우리 한국말 공부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갔다가 (비자를 못 받으면) 우리 한국말 공부도 안되요. 한국말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 가면 한국말이 필요 없어요. 영어 쓰는 건 괜찮아요. 이거 비자 연장이 안되면 돌아가야 하면 아이는 또 어떻게 가르쳐야하는지 그런게 걱정이예요. 다른건 괜찮아요. 아니면 문제 없어요. 한국 좋아요. 일 했어요. 그런거 좋아요.

질문 : 쉬는 시간이나 여가시간이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답 : 저는 진짜 사회봉사하는 거 좋아해요. 내가 친구들이랑 할 때 내가 누구를 도와주면 기분이 좋아요. 이거는 제일 좋은 거예요.

질문 : 미래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답 : 미래에는 한국에 집사고 엄마 아빠도 3달동안 한번 데리고 와서 한국에 이렇게 살고 아이도 보여주고 먹는 것 보여주고 우리 일했어요. 이런거 보여주는 것 좋아요. 그리고 비자 신청할 때 안힘들고 한국사람처럼 비자 바꾸고 싶어요. 비자 1명 연장할 때 10몇만원 내야되는데 세 명 있으면 39만원 내야되요. 한달 월세이기도 해요.

## 인터뷰. 평택시 포승에서 사는 네팔 출신 먼질

질문 :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 :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먼질입니다. 저는 19살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1년쯤 됬습니다. 저는 평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질문 :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나요?

답 : 엄마가 한국에 먼저 오셨고, 한국에 Family 비자로 오게 되었습니다.

질문 : 계속 평택에서 사셨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살다가 현재 평택에서 살게 되었나요?

답 : 계속 평택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한번 이사했어요. 평택에서. 이사할 때 조금 어려웠어요.

질문 : 평택에서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제 어머니의 회사는 평택에 있으니까 우리 이모들, 가족들이 거기 근처에 원룸에서 살면 어머니께 편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삽니다.

질문 : 한국에 왔을 때 첫인상은 어땠어요?

답 : 저는 한국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고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1급 선생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저를 엄청 많이 도와주고, 저를 엄청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모든 한국인을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무척 좋다고 생각해요. 많이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질문 :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곳에 대한 느낌은 어때요?

답 : 조금... 우리 동네는 아주... 조용하고. 깨끗합니다. 하지만 어.. 저 학교에서 조금 멀어서 조금 불편합니다. 나쁜점은 그것만 있어서 좋습니다.

질문 :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답 : 지금은 혼자 삽니다. 주말에는 보통 어머니께서는 우리 집에 자주 만나러 옵니다.

질문 :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이 있나요?

답 : 지금은 학생이여서, 시간 좀 바쁩니다. 왜냐하면 수업시간이 5시간이라서 좀 바쁩니다. 그리고... 어.. 교통에 있는 시간도 더 많아서 조금 바쁩니다. 그... 그것은 조금 힘듭니다.

질문 :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는 어디에요?

답 : 지금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그전에는 3개월 화성시에 발안시장에 있는 문화더함공간 서로센터에서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거기에서는 아주 친절한 선생님하고 아주 재미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행복합니다.

질문 :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답 : 한국어를 배울 때 어려운 점은 쓰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향에서 영어하고 네팔어만 공부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처음에 오면 어떻게 써야 되요. 이 글 쓸 때 어떻게 써야되요 이런거 잘 모르겠어. 지금도 조금 어려워요. 한국어 쓰기는. 다른 듣기 읽기는 쓰기보다 더 쉬워요.

질문 : 비자는 어떤 것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답 : family 비자, F3요. 그 어머니께서 조대한 비자.. 그 비자는 여행하고 만난 비자입니다. 그래서 일할 수 없습니다. 학교가서 D2로 바꾸고 싶어요. 왜냐하면 D2로 바꾸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질문 : D2비자는 주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답 : 네 맞아요. 아마.. 주마다 20시간? 25시간 일할 수 있어요. 많이는 없는데, 지금보다 더 좋아요. 대학 등록하고 생활... 교통 그 많이.. it's another expenditure for students. you know... I am lucky because my family is supporting me now, but if i would be university student, there are definitely allowance for helpful for them and me, because I can earn my own. At least it is really expensive, but I could earn the transportation fee, if i can.. I think it is really helpful.

질문 : 먼질님이 하룻동안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답 : 어...그것은 한국어 수업이요. 한국어 배우는 거.

질문 :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답 : 7시에 일어나서 먼저 샤워해요. 그 다음에 요리해서 식사를 해요. 그 다음에 이를 닦고 학교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요. 그 다음에 10시반에 집에서 출발해요. 1시에 학교에 도착해요. 버스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는 음악이나 어... 드라마를 봅니다. 음.. 그리고 1시반부터 6시반까지 한국어 수업 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구 동아리하고 체스 동아리 있으면 거기에 갑니다. 그 다음에 수원에서 6시40분에 출발하면 아마 집에 9시에 도착합니다. 그 다음에 샤워하고 저녁 먹고, 쉽니다.

질문 : 지금 사는 곳이 교통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답 : 지금 사는 곳은 포승입니다. 거기에서는 큰 버스 터미널 없어서 먼저 포승에서 안중까지 마을 버스 탑니다. 그 다음에 20분쯤 도시버스를 기다리고 그래서 2개 있어서 조금 불편합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많아요. 레드 버스는 한번.. If I missed once, it could come after 1 hour maybe, so it is really difficult.

질문 : 한국 비자에 대한 생각들이 궁금합니다.

답 : I think most of time to think 한국 비자, i think it is preety good. Even though workers form our country , they have opportunity to bring their family and not only that student visa. 다른 나라보다 제 생각에 한국 student visa D2비자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 for example, in britsh UK student visa, students only fucus on the study they can only for one week, when I think of that, I think it is really difficult for other people. but in korea, you have to allow their nessecity, free time to work, and earn their own nessecities. Also, it is free I guess rather than other counties.

질문 : 먼질 님의 미래는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답 : 고등학교 때 저는 컴퓨터 공학 전공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할 때... I don't have that... well... I am not a good at computer... just that not that much interest. that it makes me work harder that other area. 지금 컴퓨터 엔지니어링이나 테크놀로지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어디에나 관련되어 있습니다. All everywhere is related to computer and engineering. you mean.,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하면 안될 꺼 같아요.

질문 : 외국인이라고 차별 받았던 점도 있나요?

답 : 없어요. 주변에서 서포트 해주고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조금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젊은 세대들과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이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과 접하고 살아갈 꺼예요. 나와 같이 다양한 문화가 혼합될수록 더 좋은 경험이 될 꺼예요.

질문 : 한국이 이렇게 되면 외국인 주민들에게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나요?

답 : 제가 생각했을 때, 비자에 따라 가족을 초대하여 살아가는 게 어렵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의 가족의 경우 한 명이 돈을 벌고 나머지 구성원을 부양 해야하니까요. Rent, tranfortation, food, and daily nessecities are going to be double., 만약에 일하는 시간 편하게 해준다면 조금 더 우리에게도 편할 것 같아요.

질문 : 고향은 어디인가요?

답 : 제 고향은 네팔에 있는 수도입니다. 카트만두입니다. 우리 고향의 북쪽에 산맥이 있습니다. 여러나라 사람들이 등산하러 옵니다. 남쪽에는 농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쌀과 야채가 유명합니다. 교통은 매우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재밌기도 해요. 왜냐하면 빈티지 빌딩도 많고 구경하러 가는 곳들도 많습니다.

질문 : 미래 고향에서 살고 싶은지 한국에서 살고 싶은지?

답 : 지금은 한국에 살 때 1년만 되서 조금만 익숙해요. 여기에서 살면 값이 아주 많이 비쌀 것 같아요. 한국사람도 여기서 빌라나 아파트에 삽니다. That's why I think i am difficult to stay in korea. even if korean stay hard , how I am stay here? I think it is really diffiult.

### 3. 결론 :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기술이 발전하고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한국에서도 다양한 국적에서 함께 살아가는 멀리서온 이웃들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멀리서 온 이웃들은 한국사회에서 사각지대에 있고, 여전히 지방소멸과 한국사람들이 기피하는 노동력에 가장 먼저 배치되며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이웃들을 노동력으로서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가정내의 노동까지도 외주화하는 정책들은 이주민 이웃들과의 머나먼 거리감과 차이를 만들고 이를 점점 견고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 가족들과 가정들을 만나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고충에 대한 것은 비자와 한국어에 대한 부분이였다. 특히 비자는 한국으로 이동 후에 특정장소에서 머물며 살아가기 위한 조건임과 동시에 한편으로 외국인 주민과 그의 가족들에게 제한이 되기도 했고, 여러 단계로 소득과 조건들로 구분되어 있기도 했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수 많은 조건들로 이루어진 비자로 인한 삶의 제한들은 외국인 가족들이 아동들을 키우는 시기와 겹치며 고종이 가중되기도 했다.

우리는 이제 지역에서도 수천키로를 넘어 온 이웃들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다. 다양성과 다양한 지역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기대하지만, 한국이라는 현실에서 이동과 이주를 경험한 수천키로를 넘어온 이웃들은 체류기간을 결정하는 비자의 제한으로서의 한계, 언어 경제적인 고민들을 안으며 살아가고 있기도 하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우리들은 수천키로를 넘어온 외국인 주민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친구로 받아들이며, 고충을 함께하고 같이 살아야하는 법을 배워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 주민들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누군가를 포용하는 능력을 배울 것이며, 그 관계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어가며 넓은 시야를 갖게 될 것이다. 외국인 주민들 또한 다양한 관계로의 교류들은 낯선 장소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관계는 한국인 외국인 이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 2024년 8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 2)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현황 2024년 8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 3) 등록외국인 시군구별 거주현황 2024년 8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 4) 등록외국인 읍면동별 현황 경기도 화성시 2024년 3월 31일, 행정안전부
- 5) 등록외국인 시군구별·연령별 현황 2024년 3월 31일, 행정안전부
- 6)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길잡이 비자 네비게이터 2022년 12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이주  
이야기  
프로젝트  
리서치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이야기

## 경기 남부 지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주민과 가족들의 삶

리서치 : 김양우

그림 : 신현진



후원 : 경기문화재단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이 책은 2024 경기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리서치형에 선정되어,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